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 연구

- 결혼 이주여성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

지도교수 홍윤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박윤주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 연구

-결혼 이주여성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지도교수 홍윤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박윤주

2009년 2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 연구

-결혼 이주여성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

지도교수 홍윤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박윤주

2009년 2월

박윤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주심교수 (인)

* 부심교수 (인)

* 부심교수 (인)

The seal of Kyung Hee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central figure holding a staff, surrounded by a circular emblem with a grid pattern, all enclosed within a laurel wreath. Above the emblem are the Korean characters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2월

< 감사의 글 >

그간 논문을 써오면서 어려운 상황의 경험이 여러번 있었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강의를 해오며 논문 주제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산적함과 개인적인 부진함을 실감하며 실시하던 강의를 마무리하고 논문 연구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은 의외로 논문 집중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신앙의 힘이 있었고 주위에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계셨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교에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성을 일깨워주신 김중섭 교수님의 말씀이 계셨다. 특히 한국어교육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그분이 보내주신 박수는 잊지 못할 감사함이다.

백봉자 교수님은 교육자 과정 때부터 석사학위 논문 연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주셨고 정말 학문과 연구 방향이 뭔지 가르쳐주셨다. 감사드린다.

홍윤기 지도교수님은 나를 지도하시면서 힘든 점이 여러번 계셨을 것이다. 특히 마무리 즈음에서 내 연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을 때 걱정하시며 힘을 주신 점, 꼼꼼히 하나하나 지도하신 점에 더욱 감사드린다.

내 석사학위 논문은 수많은 연구의 한 편이다. 그러나 나에겐 의미가 크다. 그 이유는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다음으로 엄마의 은혜가 있었다. 또한 연구에 방해되지 않거나 도움을 주려고 애써주신 동네 여러분과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감사드린다.

나는 반드시 박사학위에 도전하여 좋은 논문 쓰는 것으로 이제까지 나의 부족한 석사학위논문을 위해 노고하신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이다.

목 차

| | |
|------------------------------------|--------|
| I. 들어가는 말 | 1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 1.2. 연구 방법 및 대상 | 3-6 |
| 1.3.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 6-9 |
| II. 학습자·교사 대상 요구 조사 | 10-17 |
| III. 응답 전략에 따른 유형 분석 | 18-22 |
| 3.1. 수용하기 전략 | 22 |
| 3.2. 비껴가기 전략 | 23-24 |
| 3.3. 거절하기 전략 | 24-25 |
| 3.4. 되돌려주기 전략 | 25-28 |
| IV.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 | 29 |
| 4.1.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 표현 | 29-51 |
| 4.2. 상황에 맞는 도입 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 51-64 |
| 4.3. 대화쌍을 활용한 도입표현 교수-학습 | 64- 67 |
| V. 맺음말 | 68 |
| 5.1. 요약 및 정리 | 68-69 |
| 5.2. 남은 과제 | 69-70 |
| 참고문헌 | 71-75 |
| <부록 1> 베트남어 설문지 | 76-79 |
| <부록 2> 영어 설문지 | 80-83 |
| <부록 3> 일본어 설문지 | 84-87 |

<부록 4> 중국어 설문지88-91
<부록 5> 한국어 설문지92-95
ABSTRACT96-98



표 목차

| | |
|---|----|
| <표 1> 응답 발화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 예시문 및 교수-학습 내용..5 | |
| <표 2>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현황 | 10 |
| <표 3>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인적 사항 | 11 |
| <표 4>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인터뷰 현황 1 | 11 |
| <표 5>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인터뷰 현황 2 | 13 |
| <표 6>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1..... | 14 |
| <표 7>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2..... | 15 |
| <표 8>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3 | 16 |
| <표 9> 응답 전략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 20 |
| <표 10> 수용하기 전략 분석 | 22 |
| <표 11> 언어 사건에 따른 응답 발화 | 23 |
| <표 12> 비껴가기 전략 분석 | 23 |
| <표 13> 거절하기 전략 분석 | 24 |
| <표 14> 되돌려주기 전략 분석 | 26 |
| <표 15> 응답 발화에 수반된 긍.부정적 의미 | 28 |
| <표 16>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순서 | 51 |
| <표 17>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 | 53 |
| <표 18>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 목록 | 55 |
| <표 19>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 57 |

국문 초록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 연구

- 결혼 이주여성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구성 방안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2언어를 배울 때부터 교육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 비해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한국에서 빠른 정착과 적응을 해야 하는 특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결혼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의 특성과 연계한 연구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수업에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화 상황별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이러한 발화 상황별 교수-학습 모형을 토대로 대화를 위한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익히게 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 및 대상을 정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전략 및 학습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학습자 집단과 달리 차별화된 발화 환경을 가진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의사소통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몇 편의 연구들은 문제제기 및 의사소통 전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대답하기’ 전략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

럽다. 이에 연구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답하기’ 학습의 필요성 및 일반화 구축을 위해 학습자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요구조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학습자 및 교사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한 ‘대답하기’ 전략이 필요하며 능동적인 학습 방안의 필요성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대답하기 전략’ 즉 응답 전략을 분석해보았다.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은 4개의 상위 범주 즉, 수용하기 전략(허락하기, 반응하기, 동의하기 등), 비껴가기 전략(변명하기, 화제 돌리기, 끼어들기 등), 거절하기 전략(불평하기, 주장하기, 반박하기 등), 되돌려주기 전략(추측하기, 감탄하기, 의도 나타내기 등)과 31개 항목의 하위 범주로 분석하였다.

이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화자의 의도를 헤아려 청자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적 의도를 화행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4장에서는 분석된 응답 전략 유형 4가지를 토대로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은 크게 3가지로 연계하여 제시하였는데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 교수-학습’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은 언어 사건에 따른 ‘발화수반력(illocutionary)’의 강도성 및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장 유형에 따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응답 발화 전략의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모형은 보편적인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특징상 화행 기능은 문장을 이루는 어휘 구조들의 형태적 조합 및 배열에 따라 응답 발화 수행 능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논의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을 위한 일반화 구축을 언급하며 남은 과제를 모색,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은 단기적인 효과를 두고 사회적 상황과 현실적 요구를 토대로 차별화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응답 전략 학습을 이를 모색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것이다.
2. 결혼 이주여성들은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에 따라 응답 전략을 학습

함으로 인해 표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반응을 적절하게 표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은 화자가 발화를 하고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헤아려 가장 적절한 반응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결혼 이주여성들은 장기간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언어 학습과 동시에 가정 생활도 영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말로 하는 담화 능력을 위해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을 제시하였다.

증가하는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소통 상황별 단원의 내용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응답 발화를 활용한 학습을 제안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 및 한계점을 모색하였다. 상황별로 응답 발화에 따른 도입표현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적절하게 배열되어 상관성을 확보했을 때 실제 상황에 쉽게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학습자와 달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에 따른 응답 발화 전략을 제안하고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¹⁾ 전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 구성 방안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는 학습 과정에서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다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²⁾가 발생하게 된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빠른 정착과 적응을 위해 언어를 단기간에 익히는 과정이 중요한 학습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에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³⁾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⁵⁾과 도입표현 구성 방안을 토대로 실제 수업의 표현 능력⁶⁾을 위한 수업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에 따른 응답 전략⁷⁾을 학습함으로써 인해 표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반응⁸⁾을 적절하게

- 1) 화자가 발화함으로써 수행하는 화행에는 사과(apology), 불평(complaint), 칭찬(compliment), 초대(invitation), 약속(promise), 요청(request) 등 수없이 많은데, 이것은 발화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에 적용된다(박영순, 2004:155). 또한 화행 기능 중심의 메타언어로 제안하기, 허락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등이 있는데(홍윤기, 2006), 본 연구의 '도입 표현'은 이를 참조하였다.
- 2) 이 경우에는 한국어 단어를 모국어 구조에 따라 배열하면서 접속사와 시제 변화는 무시하는 등의 특이한 혼합형 어법이나 발음 등의 전략을 일반적으로 구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의 대면을 꺼리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답(응답)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발화 전략 학습이 중요하다.
- 3) (Applegate, 1975:271, 재인용)은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정확히 발음하고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하여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모국어와 같은 언어 사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억양으로 얼마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 정중하게 요청하고 거절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사회언어학자들이 '담화의 규칙(the rules of speaking)'이라고 명명한 것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 4) 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연구로 왕한석 외(2005), 전만길(2005), 조선경(2006)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실제 조사 및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구지은(2006), 이은주(2006)은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모색으로 실제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으나, 학습자 중심 교육 및 실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 5) 결혼 이주여성들의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 학습자 요구 등을 고려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특징으로는 지역 방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똑같은 기질이나 성품도 남녀에 따라 달리 표현되므로 여성 언어가 가지는 특징을 공유하게 되는 점, 가사일이나 농가일에 시간이 편중되는 이유로 인해 가지는 원격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는 점 등이다.
- 6) 발화 문장은 종래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순수언어학적 분류만으로는 의미 파악의 한계가 있다. 발화 문장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의 발화 의도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장 유형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에 따라 구성성분들의 의미의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변형 및 확대되는 것, 제 3의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 등 다르게 발화되기 때문이다.
- 7) 한국여성개발원(2006)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초적인 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 8) 즉 일상생활회화와 기본적인 한글 문자체계를 어느 정도 익힌 결혼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의사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여성

표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응답 발화 전략은 화자의 의도를 헤아려 화자의 발화에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한 화행기능에 따른 ‘대답하기’ 전략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화자가 발화를 하고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헤아려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응답 발화 전략은 화자의 의사소통적 화행기능별로 세분된 응답 발화를 각 도입표현으로 구성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응답 발화 전략은 발화상황별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과 화행기능의 상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과 화행기능의 상관성을 인지하고 상관성과 연계한 응답 발화의 화행기능별로 ‘대답하기’ 를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대답하기’ 를 익히게 되면 대화의 단절을 막을 수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이러한 과정을 학습 전략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응답 발화 전략은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각 상황별 화행기능으로 세분한 대화문의 회화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대답하기’ 연습의 과정에 있어서 흥미있게 언어를 익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다른 학습자 집단에 비해 결혼 이주여성들은 언어의 불소통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노출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남편, 시댁가족, 자녀, 이웃 간과의 관계 및 유대감 측면⁹⁾
- 둘째, 자녀 교육 문제의 측면¹⁰⁾
-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측면

언급한 측면¹¹⁾을 견주어 볼 때, 일상생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담화 중심

- 들은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9) 즉 주부, 며느리, 어머니, 아내, 친구, 이웃간으로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응답 발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적, 언어적 자기표현 능력의 필요성(여성가족부, 2005:9)의 ‘예’로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경어법 사용을 들 수 있다. 시부모님이나 시댁가족 등과의 대화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응답 발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전북발전연구원, 2005)이 되기는 하는 것이다.
 - 10)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부모-자녀 관계형성의 핵심요소(Thomas, 1977, 재인용)이다. 즉,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학습활동과 관계된 교과목의 이해도나 예습, 복습은 가정 환경과도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안은미,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있어 언어는 필수적 요소이다.
언급한 측면은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처한 자녀 양육자의 입장에 들 수 있다.
 - 11) 이러한 측면들은 본 연구자가 강의했던 ‘부친시 소사구청’과 ‘부친여성청소년센터’의 한국어교실 결혼 이주여성들을 통해 ‘응답 발화’의 어려움으로 요구 조사되어 왔다. 즉 남편, 시부모, 시댁가족, 자녀, 이웃, 직장 동료 등과의 대화에 있어서 말뜻을 알아듣더라도 표현 능력이 없거나 도입 표현을 찾지 못해서 대답(응답 발화)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동기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학습 전략 연구 및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 교수-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을 숙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

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 중요하다는 이론이 도출된다. 이에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을 토대로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말로 하는 담화 능력을 위해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장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언어 학습과 동시에 가정 생활도 영위해 나가야 되므로 그러하다. 이에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상황과 현실적 요구를 토대로 단기적인 효과를 두고 차별화하여 설정하는 데 논점이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차별화된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환경을 토대로 할 때, 다른 학습자 집단과 달리 구별된 한국어 학습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황별로 응답 발화에 따른 도입표현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적절하게 배열되어 상관성을 확보했을 때 실제 상황에 쉽게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이웃과도 교제하며 한국 시민으로 정착해 가는 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¹²⁾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의 응답 발화 기능 요구를 조사하여 상황별로 분류, 분석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을 활용한 학습을 제안하고 상황별 단원의 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¹³⁾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된 응답 발화 전략을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논의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학계, 지방자치단체, 결혼 이주여성을 돕

이주여성의 주된 한국어 교육이 2-3개월에 걸쳐 주 1-2회, 회당 2-3시간씩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교육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회화 교육과 한글 쓰기, 읽기 등이 중심이 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6:214)는 것에도 기인한다. 또한 교실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습자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의 전이성 및 실용성과 접목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어 점수를 높게 맞는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실제 대화에 있어서 제대로 대답(응답 발화)을 못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토대로 지향하게 되는 본 연구의 학습 전략을 위한 요구 조사는 일반화 구축을 위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또한 요구 조사 대상은 결혼 이주여성 120명, 결혼 이주여성에게 현재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는 교사 및 실무교사 5명으로 이들의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 12) 국립국어원(2005)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언어학적 측면이 도외시된 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어휘만 제시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교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친교 활동, 정보 교환, 문제해결, 여가 활동 등의 기능(function)까지 포함한 상황별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극소화시키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습자와 달리 결혼 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응답 발화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는 시민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학계에서 보면 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위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로는 왕한석 외(2005), 전만길(2005), 조선경(2006)이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민경(2007), 구지은(2006), 이영옥(2006), 장수정(2006), 이은주(2006)이 있다.

왕한석 외(2005)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나 민간 단체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적용에는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긴다.

전만길(2005)은 옥천, 나주, 대전,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실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문제제기에 그쳤으며 실제적인 수업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구지은(2006)은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제와 기능만을 선정하여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적용해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영옥(2006)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생활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로 실용적인 교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요구분석 단계에서 가족 및 교사의 요구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은주(2006)은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재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학습자 요구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재를 구성하여 논의했다. 이 연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로 다루지 못했다. 또한 의사소통 기능을 각 단원의 본문 내용에만 국한하여 분류, 분석하여 듣기와 말하기, 쓰기 부분에서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장수정(2006)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특성과 학습 요인 등을 고려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어휘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민경(2007)은 학습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학습 교재의 방안을 모색, 제안했다. 또한 구성된 일일학습 교재의 실용성과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초급 수준의 결혼 이주여성들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시안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요구분석 단계에서 요구 대상이 초급 수준의 학습자로만 한정되었으며 교재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교사 및 가족과의 요구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시안검증 과정에 참여한 인원이 적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된 논의들을 보면 국제결혼 가정이 겪고 있는 큰 문제인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나 한국어 습득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

결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결혼 이주여성들의 최대 관심사 및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을 고려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한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나아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소통 전략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활동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시안 및 평가를 통한 검증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어교육에 대한 방안은 연구되지 않아 왔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자녀 양육, 사회 적응 등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은 물론 학습할 교재에서조차 제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착 단계에서 처음 필요한 것은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또는 문법적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필요한 언어 지식과 문화적 지식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고 담화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시안 검증 및 평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¹⁴⁾을 실제 한국어교육에 적용¹⁵⁾시켜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백경숙(1998:242)의 조사에 의하면, 영어 화자들이 칭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53.6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비껴가기식으로 받아들였는데(32.94%), 칭찬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일은 매우 드물었다. 반면, 한국어 화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강력한 규범인 겸양의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칭찬에 대한 응답 뿐 아니라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에 따른 응답 전략 학습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15) <표 1>은 칭찬에 대한 응답 전략 예시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교수-학습 내용으로 세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응답 발화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 예시문 및 교수-학습 내용

| 발화 상황 (칭찬 들을 때) | 교수-학습 내용 | | |
|---|----------|---------------------|------------|
| | 응답 전략 | 도입표현(예시문) | 화행 기능 |
| <예시문> 시어머니: 이젠 제법 음식을 잘 만드는구나. 자 녓 1: 정말요? 시어머니: 정말이지. 자 녓 2: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 알았다. 자 녓 3: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 넌 말두 예쁘게 하는구나. 자 녓 4: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 되돌려주기 | 1. 정말요? | 의구심 표시하기 |
| | 되돌려주기 | 2.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 부탁하기 |
| | 되돌려주기 | 3.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 같이 칭찬하기 |
| | 되돌려주기 | 4.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 (유머로) 보답하기 |
| | 비껴가기 | 5. 앞으로 다 잘 만들고 싶어요. | 희망 표현하기 |

이는 현실에 비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¹⁶⁾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요구와 그 시급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점과 연계된다. 본 논의는 이를 숙지하고 실제 한국어교육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¹⁷⁾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응답 전략을 수용하기, 비껴가기, 거절하기, 되돌려주기로 구분¹⁸⁾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제 수업 모형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에 따라 표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해가며 적절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익히는 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대안이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조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가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의 발화 상황별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전략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말하기’ 학습의 효과¹⁹⁾를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을 다른 학습자 집단과 구분하여 이들이 주로 노출되는

| | | | |
|---|-------|----------------|-----------------|
| 시어머니: (웃음) 자 넷 5: 앞으로 다 잘 만들고 싶어요. | 수용하기 | 6. 호호. (웃음) | 웃음으로 기쁨 표현하기 |
| 시어머니: 넌 잘 할거다. 자 넷 6: 호호. | 되돌려주기 | 7. 과찬이세요. | 겸손 표현하기 |
| 7: 과찬이세요. 시어머니: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 되돌려주기 | 8. 고맙습니다. | 고마움 표현하기 |
| 자 넷 8: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근데 언제 이렇게 배웠냐? | 되돌려주기 | 9. 옆 집에 물어봤어요. | 설명하기 |
| 자 넷 9: 옆집에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이젠 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 되돌려주기 | 10. 더 열심히 할게요. | 다짐하기 |
| 더 맛있겠는걸. 자 넷 10: 더 열심히 할게요. | | 10유형의 응답 발화 | |

이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칭찬에 대한 응답 발화는 되돌려주기 전략의 교수-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응답발화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은 크게 응답 전략, 도입 표현, 화행 기능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

- 16) (전북발전연구원, 2005)는 국제결혼가정내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자녀, 남편 또한 모든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스스로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가족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 17)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뜻을 알아듣더라도 응답 표현을 못하게 되면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전북발전연구원, 2005).
- 18) 본 논의에서 제안하고 실제 수업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수용하기’, ‘비껴가기’, ‘거절하기’, ‘되돌려주기’의 4가지 전략은 유형별로 3장에서 분석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19) 이주민들이 언어에 숙달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과 함께 각종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차별화된 발화 환경을 고려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와는 달리,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을 실제적인 한국어교육에 전략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응답 발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도입표현을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²⁰⁾의 강도성 및 보편적인 문장 유형에 따라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대화를 위한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모형을 대화쌍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결혼 이주여성 125명,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요구 조사는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서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학습자의 설문 문항 내용은 크게 인적 사항, 한국어 학습 배경,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어려운 점 및 문제점, 새 교재에 대한 요구로 나눈다. 학습자와 교사의 인터뷰 문항 내용은 결혼 이주여성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학습 방법에 있어서 고려될 부분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경험적 의견들을 조사한다. 이러한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 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논점을 토대로 각 응답 발화 항목의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을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내용 구성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수요목의 내용 범주는 크게 발화 상황, 응답 발화 항목, 도입표현의 기본문형, 도입표현의 화행 기능으로 설정한다. 발화 상황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에 따른 대화를 위한 응답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구성한다. 응답 발화 항목은 응답 전략을 학습에 제공하기 위한 문장의 화행기능별로 세분화한 항목으로 이를 교수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 및 메타언어를 사용한다. 도입표현의

20) 예를 들어 “I’ve made just some coffee”라고 발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을, 제안을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라고 한다(박영순, 2001).

기본문형은 응답 발화 항목을 토대로 결혼 이주여성의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에 따른 대화의 과정에 필요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기본문형이다. 마지막으로 도입표현의 화행기능은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기본문형이 가지고 있는 발화문의 화행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교수요목은 대화 쌍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이 다른 학습자 집단과 구별되는 발화 환경을 차별화하여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를 한국어교육에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응답 발화 학습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한다. 이는 대화의 과정에 ‘대답하기’를 화행기능별로 익히게 하는 학습 전략이며 이러한 과정을 위해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학습자 집단과 차별화하여 노출되는 발화 상황과 한국어교육의 학습 환경을 제시하였다.

이에 결혼 이주여성의 빠른 언어 학습 및 사회 정착을 위해 학습 전략의 필요성과 성격을 밝히고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교수-학습을 제안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별로 ‘응답발화’의 도입표현을 유형별로 구축하는 구성 방안의 목적을 밝혔다.

다음으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개선점 및 방안을 모색한다.

2장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 학습을 적용하기 위하여 학습자, 한국어교육 실무교사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학습용 응답 발화 전략 구성을 위해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학습자, 교사 요구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요구조사는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하고 설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위해 대상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도시는 서울, 부천 지역이며 농촌은 강화 지역으로 세분하여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요구조사 기간은 2008년 4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다. 학습자 요구조사의 인원은 1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 내용 번역은 통계청 자료에 의한 인구분포율을 토대로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선정한다. 심층인터뷰는 의사소통 증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혼 이주여성 5명,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토대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상황별 응답 발화 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응답 발화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한다. 응답 발화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을 강도성 및 보편적인 문장 유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대화 쌍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²¹⁾한다. 이러한 방법의 제안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응답 발화’ 22)에 대한 표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의사소통에 과정에 필요한 응답 전략 및 구성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들을 모색한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 및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의 기본방향²³⁾을 세워본다.

- 
- 21) 대화 쌍(Adjacency Pairs)은 대화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짝을 이루는 대화 구조이다. 대화 쌍에는 인사-인사, 물음-답, 요구-수락 등의 종류가 있다.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든 교실 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크나, 제한된 전략을 활용해 실제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응답 발화 학습은 학습자 특성상 언어 사건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발화가 특정 화행을 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언어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화자가 따듯한 차를 기대하면서 차잔에 손을 내밀면서 "This tea is really cold".라고 하면 화자는 이 발화를 통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무더운 여름날 집안 청소를 하고 식탁의 차잔을 마시고는 "This tea is really cold"라고 하면 화자는 차를 내준 이에게 칭찬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발화가 서로 다른 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박영순, 2004).
- 23) 이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로서 결혼 이주여성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발화 환경에 따라 응답 전략을 제시했을 경우 이것을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논의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은 기존 학습에 비해 교수-학습의 효과가 큰가? 그렇다면 교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한국어 교사들에게 응답 발화 전략 인식 및 교육 방법론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론과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가?
 4. 학습자로서 결혼 이주여성이 발화 상황별로 도입표현의 대화쌍으로 교수-학습할 경우, 이를 실제 대화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 및 검증 가능성이 큰가?
- 언급한 ‘문제 1’은 2장의 요구조사 및 인터뷰, 4장의 도입 표현 및 대화 쌍에서, ‘문제 2’는 4장의 교수-학습 방안에서, ‘문제 3’은 2장의 교사 대상의 인터뷰 현황표로 제시하였다. ‘문제 4’는 마지막 5장인 결론에서 분석 및 남은 과제를 수반한 한계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학습자. 교사 대상 요구 조사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에 대한 학습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사용실태 및 이들의 의사소통적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필요성 및 일반화 구축을 위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강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심곡복지회관의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했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 5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 125명,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5명으로 이루어졌다. 요구조사는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120명의 인적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현황

| 언어권 | | | | 거주시기 | | | | | 응답 발화 학습 동기 | |
|-------|-----|-----|-----|--------|--------------|-------------|-------------|--------|-------------|---|
| 베트남어 | 영어권 | 중국어 | 일본어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0년 이상 | 유 | 무 |
| 51 | 28 | 36 | 5 | 28 | 40 | 26 | 20 | 6 | 120 | 0 |
| 계 120 | | | | 계 120 | | | | | 계 120 | |

<표 2>에서 거주시기를 보면 6개월 미만의 경우가 28명이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가 40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또한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가 26명,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 20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6명으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였다.

응답 발화 학습에 대한 동기는 거주시기 및 학습 단계에 따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구조사 대상의 학습자 모두가 응답 발화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인한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거주시기가 초기 정착 단계이거나 10년 이상 되는 학습자도 응답 발화 학습²⁴⁾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방향성 및 일반화를 구축하기 위해 응답 발화 전략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전원이 응답 발화 전략 교수-학습의 요구를 보여서 이에 대한 연구와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제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²⁵⁾의 인터뷰 순서대로 번호로 나타내어 제시한다.

<표 3>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인터뷰 현황 1

| 인터뷰 질의 사항 | 인터뷰 1 | 인터뷰 2 |
|---|--|---|
| <p><질의 1></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²⁶⁾이 필요한가?</p> | 당연히 필요하다. | 당연히 필요하다. |
| <p><질의 2></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p> | 일상생활의 대화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낮은 사람과의 대화는 따로 배우 | 1. 특히 가족간, 이웃간 등과 대화에 있어서 대답을 할 때 꼭 필요하다. |

24) 설문지 마지막 항목으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결혼 이주여성들은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응답 발화 학습 의욕을 표기하였다.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에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익혀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
둘째, 응답 발화 전략 학습을 빨리 배우고 싶으며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내용

셋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요일이나 학습 내용

25) <표 3>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인적 사항

| 인터뷰 결과지 | 성명 | 국적 | 거주기간 | 연령 | 직업 |
|---------|------|-------|----------|-----|--------------|
| 1 | 경매 | 중국 | 약 2년 반 | 25세 | 주부 |
| 2 | 랑사멜 | 베트남 | 약 2년 4개월 | 25세 | 방문교육 지도교사 |
| 3 | 무나 | 인도네시아 | 7년 | 35세 | 주부 |
| 4 | 스레이라 | 캄보디아 | 2년 | 23세 | 주부 |
| 5 | 온옥순 | 베트남 | 9년 | 35세 | 주부 |

26) 대화를 위한 응답 발화를 활용한 학습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이다.

| | | |
|---|---|--|
| <p>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왜 필요한가?</p> | <p>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p> | <p>2.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매우 답답하다. 3. 한국에서 살아갈 때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불편하다. 4.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정 교육,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정서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p> |
| <p><질의 3></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p> | <p>자녀 양육을 위한 일상 생활의 대화나 통화에 필요한 ‘대답하기’의 과정은 중요하다. 또한 주로 노출되는 응답 발화 상황에서도 ‘대답하기’를 익혀놓지 않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p> | <p>한국에 정착 단계나 학습 초기에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유지하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문장에서든지 대답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발화에 따라 다양한 반응의 대답을 해야되기 때문이다.</p> |
| <p><질의 4></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p> | <p>교재 및 부교재를 중심으로 하되, 방문 교육보다는 집단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테이프 및 CD등을 활용하며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즉, 미용실가기, 샵과 연관(시장가기, 고지서 납부 등)된 응답 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 <p>한국어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예를 들어 퀴즈 프로그램이나 한국말 익히기 프로그램 등에 의사소통의 ‘대답하기’에 관련하여 정보 및 학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외 효과적인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 시도하여 적용시키는 과정이 효과를 줄 수 있다.</p> |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일상 상황 대화에 있어서 ‘대답하기’ 학습 즉, 응답 전략 학습 요구와 필요성은 다양한 각도와 접근에서 절실히 요구

된다.

또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되는 학습자가 대화에 있어서 ‘대답하기’의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자, 교사 요구조사에서는 거주시기가 수 년 이상 되는 학습자도 ‘대답하기’의 표현 능력의 필요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차별적인 응답 발화의 전략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습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으며 다음의 <표 4>에 제시한다.

<표 4>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인터뷰 현황 2

| 인터뷰 질의 사항 | 인터뷰 1 | 인터뷰 2 | 인터뷰 3 |
|---|--|--|--|
| <p><질의 1></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필요한가?</p> | 당연히 필요하다. | 당연히 필요하다. | 당연히 필요하다. |
| <p><질의 2></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왜 필요한가?</p> | 한국에서 정착하며 대화해야 될 부분이 증가한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화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답답하다. | 책을 보고 이해하며 읽고 싶으며 공부하기도 재밌다. |
| <p><질의 3></p> <p>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전략적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p> |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교제와 한국에 정착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시부모님이나 남편과의 대화에 있어서 대화가 잘 안되서 불편하며 긍.부정적 감정 표현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 자녀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 혼자서 공공기관 및 기타 시설의 이용 등 한국에서 살면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

<표 4>의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인터뷰 결과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의 교-학습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을 중심으로 인터뷰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인터뷰 1>에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교제와 한국에 정착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학습이 요구된다고 했다.

<인터뷰 2>에서 대화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불편하며 상대방의 긍. 부정적 감정 표현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학습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 3>에서는 남편, 자녀에 대한 입장, 주부로서의 입장 나아가 한국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므로 응답 발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 있어서 질문지 조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뷰 참여 인원 전원이 응답 발화 학습의 요구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응답 발화 전략의 일반화 구축을 위한 모색으로 현재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터뷰 조사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교육 담당교사²⁷⁾는 모두 5명이며 인터뷰 내용은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한다. <표 5>는 농촌지역의 강화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터뷰 현황이다.

<표 5>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1

| 인터뷰 질의 사항 | 강화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
| <p><질의 1></p> <p>응답 발화 전략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필요한가?</p> | <p>가정 내의 실제 상황에서부터 정보활동, 친교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필요하다.</p> |
| <p><질의 2></p> <p>응답 발화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p> | <p>생존 전략,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발화상황별 응답 발화 전략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p> |

<표 5>의 <질의 1>에 대해 응답 발화는 가정 내의 실제 상황, 정보 활동, 친교 활동 등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뜻을 알아듣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발화를 찾지 못하

면 대화가 단절되며 이러한 현상은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대답하기’에 있어서 하나의 어휘 및 구만 알아도 상대방의 발화에 응답하거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과의 영어를 사용할 때 발화 문장 중에서 단어 및 구를 발화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질의 2>에 대해 생존과 연관되며 가족간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별 응답 발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은 기존 대화에 중요한 응답 발화에 대한 연구 및 교수-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반해 응답 발화의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6>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2

| 인터뷰 질의 사항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
|--|--|--|
| | 인터뷰 1 | 인터뷰 2 |
| <p><질의 1></p> <p>응답 발화 전략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필요한가?</p> | <p>회화 중심이 되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므로 당연히 필요하다.</p> | <p>응답 발화 전략의 교수-학습을 한국어교육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p> |
| <p><질의 2></p> <p>응답 발화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p> | <p>4언어 영역을 통합한 교수-학습 과정이 필요하며 통.번역 체계를 갖춘 교사 및 교재를 토대로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 <p>응답 발화 전략 학습은 전문적인 부교재 및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 |

<표 6>의 <질의 1>에 대해 회화 중심이 되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응답 발화 전략을 한국어교육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 연구와 한국어교육에의 적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4언어 영역을 통합한 교수-학습 과정이 필요하며 통.번역 체계, 전문적인 부교재 및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4언어 영역을 통합한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부교재에 관한 연구 및 활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심곡복지회관에 방문해서 인터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7>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무교사 인터뷰 현황 3

| 인터뷰 질의 사항 | 심곡복지회관 | |
|--|--|---|
| | 인터뷰 1 | 인터뷰 2 |
| <p><질의 1></p> <p>응답 발화 전략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필요한가?</p> | <p>초기 단계의 결혼 이주여성들도 긍.부정적 반응에 응답 발화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p> | <p>일상 생활과 연관된 의사소통 전략이므로 당연히 필요하다.</p> |
| <p><질의 2></p> <p>응답 발화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p> | <p>실제 대화 상황에 대해 역할극, 대화문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 | <p>학습 초기부터 긍.부정적 반응을 난이도에 따라 통.번역 체계를 갖추어 교수-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문장 표현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p> |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에 관한 교사 인터뷰 결과, 대화에 있어서 당연히 응답 발화 전략 학습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표 7>에서 <질의 1>에 대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전략이므로 당연히 필요하며 초기 단계의 결혼 이주여성들도 긍.부정적 반응에 응답 발화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초기 단계의 결혼 이주여성은 학습 전략에 따라 난이도가 쉬운 단계부터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던 점에 반해 의사소통 전략의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실제 대화 상황에 대해 역할극, 대화문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문장 표현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대화문을 문장 표현으로 익히도록 설정하여 제시한 부교재 구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교재는 본 논의에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과 대화 쌍을 활용하여 구성, 제시하고자 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사의 인터뷰 결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의 경우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회화 중심의 부교재 및 커리큘럼의 활용을 강조했다.

심곡복지회관의 경우 초기학습 단계부터 긍·부정적 반응에 응답 발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문장표현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실제 상황에 따른 응답 발화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생존 전략, 정보 교환, 친교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발화 상황별 응답 발화 교수-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응답 발화의 교수-학습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화 중심의 문장표현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논의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사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한 응답 전략에 대해 3장과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27) 부천시 원미구청 주최의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는 김대근 선생님과 황윤혜 선생님이 인터뷰를, 부천시 소사구청 주최의 '심곡복지회관'에서는 장경선 과장님과 김지은 선생님이 인터뷰를 해주셨다. 또한 '인천강화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정혜운 선생님이 인터뷰를 해주셨다.

III. 응답 전략에 따른 유형 분석

본 연구는 대화의 교수.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대화 전략’의 교수.학습(유동엽, 1997)임을 밝히고 응답 발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전략은 크게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으로 분석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대화 전략에 있어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전략으로 ‘대답하기 전략’이 있다. 대답하기 전략은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응답 발화를 발화문의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학습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한 응답 발화를 발화문의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응답 전략에 따른 응답 발화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분석된 발화문의 화행의미기능을 제시한다. 발화문의 화행의미기능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발화 환경에 따른 화자수행력을 응답 발화의 의미기능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의사소통은 발화 환경을 토대로 화자가 발화한 수행력에 대해 청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응답 발화의 의미기능에 따라 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네 가지 유형의 응답 전략 즉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을 지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에 있다. 하나의 문장은 발화 상황에 따라 진술을, 제안을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발화수반력’이라고 한다(박영순, 2001).

둘째,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발화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하나의 발화는 언어사건에 따라 다르게 발화된다.

문장 의미의 종합적 분류는 정보전달, 교훈, 질문, 판단, 요청, 설명, 설득, 친교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박영순, 2001). 청자는 각 발화 문장에 따라 같은 기능 또는 나타내고 싶은 기능에 맞는 응답을 자유롭게 하여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다른 학습자 집단에 비해 차별화된 발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발화 상황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답하기’ 능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발화수반력을 도출하여 문장의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을 문장으로 익히는 데 필요한 응답 전략을 분석한다.

즉 분석된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발화 문장을 발화수반력의 의미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한국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답을 할 때 발화문의 화행기능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상대방의 의견의 동의하기 유형의 발화
2.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상반되는 발화가 아니라 비껴가기 유형의 발화
3. 상대방의 의견에 상반되는 발화
4.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발화

응답 전략으로 세분하면 번호 ‘1’은 수용하기 전략이며 번호 ‘2’는 비껴가기 전략이다. 또한 번호 ‘3’은 거절하기 전략이며 번호 ‘4’는 되돌려주기 전략이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응답 전략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화행의미기능을 토대로 나눌 때 더 이상 세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각 응답 전략(상위범주)은 응답 발화의 유형별로 하위 범주로 세분화된다. 응답 전략을 분석하여 도출한 하위 범주는 발화수반력을 도입하여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발화 문장의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백경숙(1998, 재인용)은 응답 전략에 대해 수용, 비껴가기, 거절, 무응답의 4가지 유형을 찾아낸 바 있다.

(1). 응답 전략

- ㄱ. 수용
- ㄴ. 비껴가기
- ㄷ. 거절
- ㄹ. 무응답

응답 전략으로 수용, 비껴가기, 거절의 화행기능은 가지나 무응답은 어떤 화행기능에서도 표현하거나 유형별 화행기능과 수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논의는 일반적인 발화에서 빈도수가 높은 되돌려주기 전략을 도입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되돌려주기 전략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라 다시 의견을 전달하는 전략이다.

언급하면 응답 전략은 언어 사건을 고려하여 발화의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표현되므로 수용하기, 비껴가기, 거절하기, 되돌려주기로 구분한다.

응답 전략의 4가지 유형은 화자가 의미하는 것, 발화된 문장이 의미하는 것, 화자가 의도하는 것, 청자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 성분 요소를 운용하는 규칙들과 일련의 분석적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화수반 행위는 질문, 명령, 약속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칙 지배적이며 의도적인 것이다.

Searle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규칙 지배적 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언어 이론은 행위 이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화자가 발화함으로서 수행하는 화행에는 사과(apology), 불평(complaint), 칭찬(compliment), 초대(invitation), 약속(promise), 요청(request) 등 수없이 많다. 이것은 발화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에 적용된다. 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청자에게 인식되기를 바란다.

이에 응답 전략에 따른 유형별 응답 발화의 세분화는 언어 사건의 발화수반력에 따라 화자가 발화함으로서 수행하는 화행을 분석하여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 전략의 유형별 응답 발화에 따른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모형을 4장에서 구축할 것이다. 보편적인 문장표현을 도입표현으로 익히게 되면 대화의 연습, 활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응답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화자의 입장에서 선행 발화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4가지 유형의 응답 전략 즉,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을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익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에 응답 전략을 상위 범주로 하여 각 전략의 응답 발화 유형을 하위 범주로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응답 전략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²⁸⁾

| 순번 | 수용하기 | 비껴가기 | 거절하기 | 되돌려주기 |
|----|------|-------------|----------|---------|
| 1 | 동의하기 | 반응하기 | 끼어들기 | 감사 전하기 |
| 2 | 동조하기 | 변명하기 | 반박하기 | 감탄하기 |
| 3 | 반응하기 |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 | 반응하기 | 격려하기 |
| 4 | 약속하기 | 화제 돌리기 | 불평하기 | 같이 약속하기 |
| 5 | 허락하기 | | 의구심 표시하기 | 같이 칭찬하기 |
| 6 | | | 주장하기 | 반응하기 |
| 7 | | | 제한하기 | 보상하기 |
| 8 | | | 훈계하기 | 설득하기 |

28) 응답 전략의 상위 범주에 따라 세분화된 하위 범주의 순서는 ‘ㄱ, ㄴ, ㄷ’ 등의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 | | | | |
|----|---|---|---|---------|
| 9 | | | | 설명하기 |
| 10 | | | | 요청하기 |
| 11 | | | | 의도 나타내기 |
| 12 | | | | 제안하기 |
| 13 | | | | 추측하기 |
| 14 | | | | 친교 표시하기 |
| 총계 | 5 | 4 | 8 | 14 |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 전략의 수용하기 전략은 5가지 유형의 응답 발화, 비껴가기 전략은 4가지 유형의 응답 발화, 거절하기 전략은 8가지 유형의 응답 발화로 세분하여 교수-학습한다. 또한 되돌려주기 전략의 응답 발화 유형은 대화에 있어서 ‘대답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화 유형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말로 하는 담화 능력을 위해 총 31개의 응답 발화 유형을 익히게 하면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발화 문장의 변형 및 확대 등을 활용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발화 문장은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 필요한 발화 유형은 본 논의에서 세분한 응답 전략의 31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표 8>에서 분석한 응답 전략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토대로 응답 발화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표 9>의 수용하기 전략²⁹⁾에 제시된 동의하기, 동조하기, 반응하기, 약속하기, 허락하기의 응답 발화 유형은 각 전략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상호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라 수행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언어사건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라 응답 발화하게 된다.

수행력은 발화 자체의 이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화행론을 schiffrin(1994: 49-96, 재인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화행론은 언어는 단순히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자체의 이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화행론의 기본 통찰력은 의미와 행위가 어떻게 언어와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표 9>,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된 유형별 응답 발화의 분석은 화자의

29) 수용하기 전략의 ‘약속하기’를 예를 들어 분석하면, 대화 쌍은 선호, 능동적이며 긍정적 의미, 웃음, 휴지, 침묵, 유머 등을 수반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화를 둘러싼 언어 사건(Speech event)을 토대로 한 것이다.

언어 사건(Speech event)은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발화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데 발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박영순, 2001). 응답 전략은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차별화된 발화 환경을 토대로 학습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때문에 언어 사건은 응답 발화의 화행 의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사건은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의 발화 상황이므로 각 전략의 응답 발화 유형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분석된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화자의 발화를 들은 청자는 학습한 발화문을 확대 및 축소 등으로 변형하여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 응답 전략의 유형별 발화를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의의 응답 발화 전략의 분석은 Austin(1962)이 주장한 화행의 발화 행위, 발화수반 행위(긍.부정적 의미, 웃음, 휴지, 침묵, 농담), 발화효과 행위(수행력)³⁰⁾로 이루어졌다. 이는 화자의 감정표현과 발화의 의미기능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은 발화 상황과 유형별로 다른 양태를 가진다.

발화수반 행위는 말함으로써 진술, 명령, 질문, 약속, 경고 등의 ‘의사소통력(communicative force)’을 갖고 있는 행위이다(송경숙, 2003). 즉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발화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 기능의 화행에 사용될 수 있다.

각 응답 전략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로 제시하였다. <표 9>, <표 11>, <표 12>, <표 13>은 응답 전략의 4가지 유형의 상위범주(수용하기, 비껴가기, 거절하기, 되돌려주기)를 실제 발화했을 때 표현되는 양상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수용하기 전략의 분석을 제시하며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수용하기 응답 발화의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 전략을 말한다.

3.1. 수용하기 전략

<표 9> 수용하기 전략 분석³⁰⁾

| | | | | | | | | | |
|------|------------------|-----------------------------|--------------|-------------------------|-----------------|----------------|----------|----------|---------------------------------|
| 수용하기 | 대화 쌍 (선호/비선호) | 양태 (능동적/ 수동적/ 중립적) | 긍.부정 적 의미 | 언어적 사건 (발화 환경) | (비) 웃음 수반 | 휴지 침묵 수반 | 유머 수반 | 감정 표현 | 수행력 (illocutionary force) |
|------|------------------|-----------------------------|--------------|-------------------------|-----------------|----------------|----------|----------|---------------------------------|

30) 발화효과 행위는 발화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결국 설득하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등의 실제적 효과를 갖는 발화영향 행위이다(송경숙, 2003).

| | | | | | | | | | |
|-------------------------|----|-----|-----------|----------------|---|---|---|----|--------|
| 약속 ³¹⁾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약속 제시 | o | o | o | 다짐 | 약속 지키기 |
| 동조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언어 행위 | o | o | o | 동조 | 언행 일치 |
| 동의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의견 제시 | o | o | o | 동의 | 의견 일치 |
| 반응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언어 행위 | o | o | o | 호응 | 상호작용 |
| 허락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제시 | o | o | o | 긍정 | 허락 |

3.2. 비껴가기 전략³¹⁾

비껴가기 전략은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에게 있어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학습 전

수용하기 전략의 ‘약속하기’를 예를 들면 ‘다짐’의 감정표현과 ‘약속지키기’의 수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수용하기 전략은 화자의 발화에 대해 청자가 수용(동조, 동의)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가지며, 화행기능은 ‘수용하기’로 선호 대화 쌍, 능동적이고 긍정적 의미를 가진 응답 발화 전략이다.

이러한 점은 언어 사건과 화자의 응답 발화와 큰 연관관계를 가지고 함께 수반되어 나타난다.

30) 수용하기 전략은 상대방의 발화에 긍정적 의도로 표현하는 발화로 다른 전략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어서 초급 단계의 학습에 용이하다. 수용하기 전략을 토대로 언어 사건에 따른 응답 발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언어 사건에 따른 응답 발화

| 화자 발화 | 언어 사건 | 응답 발화 |
|--------------------------|--------------------------|-----------------------|
| 옷가게 점원: 이 옷은 어때요? | 옷 가게 카운터에 실수로 가방을 놓고 왔음. | 잠깐만요. 가방 좀 가져오구요. |
| 은행원: 카드를 다시 만드셔야겠네요. | 아기가 운다. | 아유, 왜 우니? 지금 만들어 주세요. |
| 시어머니: 가만있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 달력과 핸드폰이 가까이 있음. | 화요일같은데 다시 볼게요. |

31) 비껴가기 전략은 다른 의사소통 전략에 비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급 단계부터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략이다. 한국어의 특징상 담화 맥락을 둘러싼 화용 정보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므로 다양한 발화상황별로 ‘대답하기’를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에 따른 비껴가기에 대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익히게 되면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1>는 <표 9>, <표 12>, <표 13>과 마찬가지로 대화할 때 응답 발화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입표현 구축을 위해 중요한 분석 과정이다.

다음의 <표 11>은 비껴가기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표 11> 비껴가기 전략 분석

| 비 껴 가 기 | 대 화 쌍 (선호/ 비선호) | 양태 (능동적 /수동적 중립적) | 긍.부정 적 의미 | 언어적 사 건 (발화 환경) | (비) 웃음 수반 | 휴지 침묵 수반 | 유머 수반 | 감정 표현 | 수행력 (illocutionary force) |
|-----------------------|-----------------------------|----------------------------|--------------|--------------------------|-----------------|----------------|----------|----------|---------------------------------|
| 칭찬에 대한 비하 하기 | 선호 | 화자 선택 | 긍정적 의미 | 화자 칭찬 | ○ | ○ | ○ | 후회 | 실득 |
| 변명 하기 | 비선호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 추궁 | ○ | ○ | ○ | 기쁨 | 검손 |
| 화제 돌리기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 발화 | ○ | ○ | ○ | 담화 맥락 | 화제 전환 |
| 반응 하기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 발화 | ○ | ○ | ○ | 담화 맥락 | 회피 |

3.3. 거절하기 전략³²⁾

거절하기 전략은 상대방과의 발화에 대한 상반되는 화행의미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32) 거절하기 전략 학습은 초기 정착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대화(훈계하기, 의구심 표현하기, 제한하기, 훈계하기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 의도를 수반하므로 수행력의 강도성이 높다.

이러한 거절하기 전략은 수용하기 전략과 상반되는 화행의미기능을 나타내며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긍.부정적 반응으로 ‘대답하기’를 익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정착 단계부터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순서별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4장에서는 응답 전략의 학습 순서를 제시한다. 거절하기 전략의 분석은 <표 12>에 제시한다.

<표 12 > 거절하기 전략 분석

| 거절하기 | 대화 쌍 (선호/비선호) | 양태 (능동적/수동적/중립적) | 긍.부정적 의미 | 언어적 사건 (발화 환경) | (비)웃음 수반 | 휴지 침묵 수반 | 유머 수반 | 감정 표현 | 수행력 (illocutionary force) |
|----------|------------------|---------------------|----------|-------------------|----------|-------------|-------|--------|------------------------------|
| 의구심 표현하기 | 비선호 | 화자 선택 | 부정적 의미 | 화자 발화에 대한 의구심 | x | o | o | 의심 | 의구심 해소 |
| 반박하기 | 비선호 | 화자 선택 | 부정적 의미 | 화자와 청자간의견 대립 | x | o | o | 불만 불쾌감 | 갈등 해소 갈등 발생 |
| 제한하기 | 비선호 | 화자 선택 | 화자 선택 | 화자의견 제시 | x | o | o | 담화 맥락 | 제한하여 수행 |
| 반응하기 | 비선호 | 화자 | 화자 | 화자 | o | o | o | 반발감 | 거절 표시 |
| 불평하기 | 비선호 | 화자 선택 | 부정적 의미 | 화자 비선호 의미 발화 | x | o | o | 불만 | 불만 해소 |
| 훈계하기 | 화자 선택 | 능동적 양태 | 화자 선택 | 훈계 이유 발생 | x | o | o | 실망 유대감 | 청자 훈계 |
| 끼어들기 | 화자 선택 | 능동적 양태 | 화자 선택 | 화자 발화 | o | x | o | 담화 맥락 | 발화 주도성 |
| 주장하기 | 비선호 | 능동적 양태 | 화자 선택 | 화자의견 주장 | x | o | o | 담화 맥락 | 화자의견 주장 |

3.4. 되돌려주기 전략³³⁾

대화에 있어서 응답 발화는 결국 ‘듣고 대답하기’ 라고 볼 수 있다. 되돌려주기 전략은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의사소통적 의도의 화행 기능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응답 전략은 되돌려주기 전략의 발화별 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청-화자의 대화에 있어서 응답 발화는 되돌려주기 전략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화는 화자가 발화를 하고 청자는 화자 발화에 대한 응답(대답)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화자가 청자와 자신의 의도를 헤아려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예시 1>의 대화문에서도 나타난다.

< 예시 1 >

- 시어머니: 왜 벌써 왔니?
 도입표현 1: 어머니, 왜요?(질문하기)
 2: 글썄, 지갑을 놓고 나가서.....(설명하기)
 3: 왜요? 일이 좀 있어서요.(질문하기, 설명하기)

되돌려주기 전략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적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화 상황에 따른 청-화자의 감정 표현을 함께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표 13>은 되돌려주기 전략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3> 되돌려주기 전략 분석

| 되 돌 | 대화 쌍 (선호 /비선호) | 양태 (능동적 /수동적) | 긍.부정 적 의미 | 언어적 사건 | (비) 웃음 | 휴지 침묵 수반 | 유머 수반 | 감정 표현 | 수행력 (illocutionary) |
|--------|----------------------|---------------------|--------------|-----------|-----------|----------------|----------|----------|------------------------|
|--------|----------------------|---------------------|--------------|-----------|-----------|----------------|----------|----------|------------------------|

33) 되돌려주기 전략은 대화쌍을 활용한 역할극을 교수-학습에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초급 단계는 수용하기, 거절하기, 중급 단계에서는 비껴가기 전략을, 고급 단계에서는 비껴가기 전략과 되돌려주기 전략을 중심으로 부교재 및 수업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 | | | | | | | | | |
|----------------|----|------------|-----------|----------------------------|----|---|---|-----------|-----------------|
| 려 주 기 | | /중립적) | | (발화 환경) | 수반 | | | | force) |
| 격려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상황 부정적 | ○ | ○ | ○ | 유대감 | 응원 용기주기 |
| 제안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 자 - 청자 의논 | ○ | ○ | ○ | 청자 의존적 | 의견 제안 |
| 감탄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묘사 설명 | ○ | ○ | ○ | 기쁨 | 언어에 의한 감정표현 |
| 설득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의견 발화 | ○ | ○ | ○ | 배려심 | 설득 |
| 같이 칭찬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가 청 자 에 게 칭찬 | ○ | ○ | ○ | 기쁨 즐거움 | 상호 칭찬하기 |
| 같이 약속 하기 | 선호 | 선택/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약속 | ○ | ○ | ○ | 다짐 | 화자-청자 상호간 약속 |
| 감사 전하 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상 대 방 에게 도 움을 받 음 | ○ | ○ | ○ | 감사함 | 감사함 전함 |
| 반응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화자 발화 상황 | ○ | ○ | ○ | 배려 | 청자 반응 신호 |
| 친교 표시 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교제 상황 | ○ | ○ | ○ | 친밀감 | 친밀감 표현 |

| | | | | | | | | | |
|---------|----|-------|--------|----------|---|---|---|------------|--------------|
| 보상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칭자에 배려 | ○ | ○ | ○ | 배려심 | 칭자에게 보상 표현하기 |
| 요청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수행 | ○ | ○ | ○ | 감사함 미안함 | 요청 |
| 추측하기 | 선호 | 화자 선택 | 긍정적 의미 | 화자 추측 | ○ | ○ | ○ | 불확신 | 추측 전달 |
| 설명하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정보 요구 | ○ | ○ | ○ | 진지함 | 정보 전달 |
| 의도 나타내기 | 선호 | 능동적 | 긍정적 의미 | 후행 행동 제시 | ○ | ○ | ○ | 성취 동기 | 의도 표현 |

되돌려주기 전략은 14가지의 응답 발화 유형으로 분석되어 가장 많은 발화 유형을 수반한다. 다양한 발화 유형을 난이도에 따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표 9>,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된 응답 전략의 발화 유형은 언어 사건을 고려하여 화행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화행기능은 수행력을 나타내며 수행력은 발화를 행위로 보고 각 응답 전략의 유형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수행적 행위(illocutionary act)는 Austin(1963), Searle(1969)의 “Speech Act Theory)” 중에 나오는 용어로 이 이론에서는 발화를 행위로 본다(박영순, 2001, 재인용). 즉 발화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행력(illocutionary force)을 갖는다고 보고 ‘수행적 행위’³⁴⁾라 하였다(박영순, 2001, 재인용).

본 논의에서는 응답 전략 즉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에 있어서 발화 행위가 수행력을 수반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 장의 응답 전략 분석에 있어서 수행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응답 발화는 휴지, 침묵, 미소, 웃음, 유머 등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꼭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 이제부터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부르자’ 등의 유형이다. 즉 발화를 함으로써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부르는 것의 수행력을 가지게 된다.

<표 14> 응답 발화에 수반된 긍.부정적 의미

| 응답 발화 | 휴지 | 침묵 | 미소/웃음 | 유머 |
|-------|-------|-------|-------|-------|
| 수용하기 | 긍정적 | 긍정적 | 긍정적 | 긍정적 |
| 비껴가기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 거절하기 | 부정적 | 부정적 | 부정적 | 부정적 |
| 되돌려주기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긍.부정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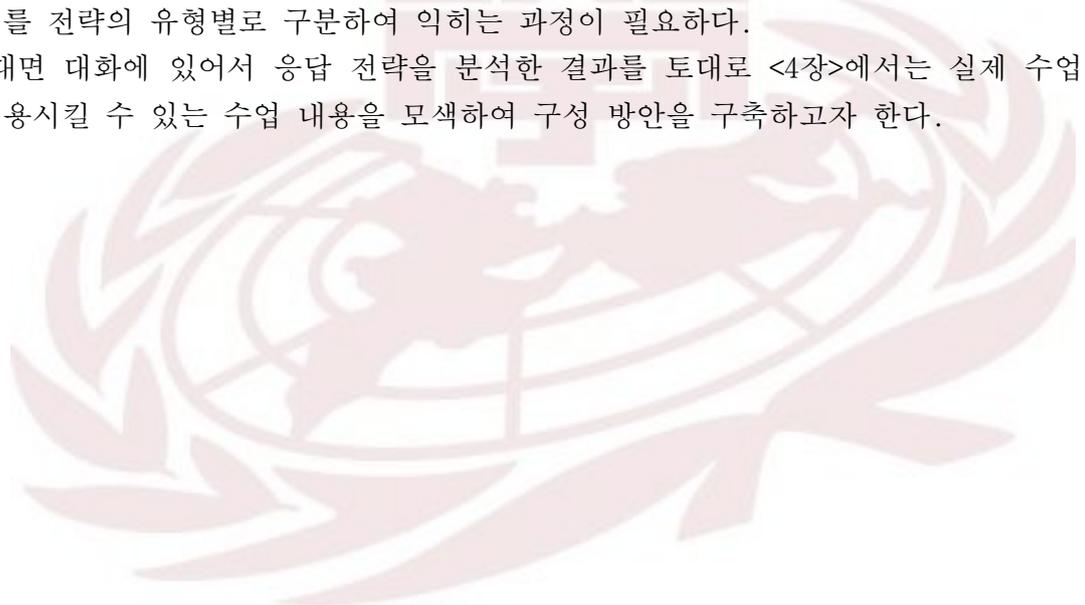
수용하기는 휴지, 침묵, 미소 또는 웃음, 유머 등에 있어서 긍정적 의미를 수반하며 거절하기는 부정적 의미를 수반한다.

이에 수용하기 전략과 거절하기 전략은 상반되는 의미기능의 개념을 가진다.

비껴가기와 되돌려주기는 응답 발화와 함께 휴지, 침묵, 미소, 웃음, 유머 등을 수반할 때 긍.부정적 의미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 즉 언어 사건에 따른 화자와 청자간의 감정 표현에 따라 언어의 화행의미기능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수반 행위를 긍.부정적 행위로 선택하여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응답 발화와 함께 수반될 수 있는 휴지, 침묵, 미소, 웃음, 유머 등의 의미를 전략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면 대화에 있어서 응답 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4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업 내용을 모색하여 구성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IV.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이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통해 조정(negotiation)하며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이다. 즉 대화는 능동적인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정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리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다. 이에 대화 전략은 대화가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교육에 적용하여 학습 전략에 연계시키고자 한다. 대화가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정 과정이라는 점은 각 층위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응답 발화)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응답 전략의 응답 발화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은 응답 발화가 곧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본 논의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효과적인 대화 전략을 목적으로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을 각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교수-학습 방안에 도입하고자 한다.

4.1.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

도입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응답 발화에 대한 표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입표현만을 응답 발화에 대한 표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정한 이유는 문장이 발화수반력을 가진 총체의 언어 단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에게는 많은 학습의 시간보단 흥미를 줄 수 있는 회화 중심의 문장 표현으로 익히게 하는 단순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입표현은 대면 대화에서 응답 발화될 수 있는 화행 기능으로 세분하여 문장으로 구축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문장으로 구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특징상 화행 기능은 문장을 이루는 어휘 구조들의 형태적 조합 및 배열에 따라 응답 발화 수행 능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은 완성된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셋째, 형태소나 단어나 구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단위가 되는 완전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담화 전체를 언어 단위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어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은 지역 방언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점, 연령대가 높은 시대 가족과 대화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은 실제적 구어 발화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응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은 실제 응답 발화에 자연스럽게 전이시키기 위한 모색으로 가급적 문법과 연계된 형태의 고정화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응답 발화의 전략적인 도입표현을 익히게 되면 실제 대화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화행 방식을 선택하여 대답하게 된다.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은 결혼 이주여성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수행 발화(응답 발화)를 익힐 수 있도록 분류한 것이다. 응답 발화 도입표현의 구분은 문장의 기능에 따른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funcion)이란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했을 때 이것이 청자에게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이다(박영순, 2001).

이에 화자의 발화에 대해 의사소통적 의도를 설정하여 역할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의 과정에 따라 응답 발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발화수행력에 따라 수행되는 응답 발화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구성 방안이다.

하나의 화행은 한 가지 문장 형태의 발화문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의사소통 기능이 직접 화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일련의 연속적 화행이 이루어지는 언어 사건(speech event)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응답 발화 유형에 따른 도입표현은 언어 사건을 토대로 구축하였으며 다음의 <1-4번>까지 유형별로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A>항목에는 결혼 이주여성이 주로 대화하는 상대방의 발화를, 결혼 이주여성의 응답 발화에 해당하는 항목은 각 <예>의 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문은 대화의 과정이 세 가지 요소 즉, 발화 정보, 상황 정보, 인지 정보의 복합적인 작용임을 모색하여 설정하였으며 응답 전략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도입표현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화 수행의 강도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도입표현은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별로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응답 발화로 구성한다.

1. 수용하기

(1). 허락하기

ㄱ. 언제든지요./ 뭐든지요.

예 1) A: 언제 놀러가도 되나요?

B: 언제든지요.

예 2) A: 슈퍼에 있는데 빵 사가지고 갈까?

B: 뭐든지요.

ㄴ. 그럼요.

예) A: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이해해 줄거지?

B: 그럼요.

ㄷ. 괜찮아요.

예). A: 오늘 집에 친구 좀 부를까 하는데...

B: 괜찮아요.

(1ㄱ)~ (1ㄷ)의 예문 는 허락하기의 응답 발화이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물어볼 때 긍정적 대답을 요구하며 응답 발화 역시 긍정적 대답을 하게 된다.

(2). 동의하기

ㄱ.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A: 요즘 저 녀석이 공부를 안하는 것 같아.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형 ‘그러하다’가 ‘그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발화됨을 교수한다. ‘동의하기’는 ‘동조하기’와 유사한 문장화행기능을 가지나 차별성이 있으므로 혼동되지 않게 주안점을 두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청자가 이미 앞에서 어떤 발화를 했고 화자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박영순, 2001:308).

동조하기와의 차별성을 보면 동의는 청자의 제안이나 어떤 의견에 대해 화자가 같은 의견임을 밝히는 문장이다(박영순, 2001:307).

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A: 이번 어머니 생신 때는 여행 좀 보내드릴까 해(요).

B: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ㄷ.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A: 요즘 어머니 기분이 안좋아 보이{세요}셔.

B: 그런 것 같아요.

(3). 동조하기

ㄱ. 당연하고 말구요.

예). A: 다들 잘 있지{요}? {너/ 자넷 씨/올케}도 나 보고 싶지{요}?

B: 당연하고 말구요.

ㄴ. 물론이에요.

예). A: 한국 음식 중에서 뭐니뭐니해도 비빔밥이 최고야.

B: 물론이에요.

ㄷ. 그러죠.

예). A: 오늘은 외식{하자/해요/합시다}.

B: 그러죠.

(3ㄱ)은 동조를 표현하는 경우의 예이다. (3ㄴ)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호응을 나타내며 (3ㄷ)은 수락하는 의미를 가진다.

동조하기는 화자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하는 응답 발화이다. 이에 비해 동의하기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발화에 있어서 동의하기와 동조하기는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동의하기와 동조하기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가). A: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A: 난 힘들면 집에서 쉬는게 제일 좋더라.

B: 정말 그래요.

(가)는 동의하기의 경우로 (가B)는 (가A)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여 응답 발화하는 예이다. (나)는 동조하기의 경우로 (나B)는 (나A)의 의견,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그러함을 긍정하여 표현하는 예이다.

(4). 약속하기

ㄱ. 약속을 다짐하기

- 예). A: {엄마/여보/ 애야/자넷 씨}, 이번 생일에 선물 사줄거지{요}?
B: 약속할게요.

ㄴ. 행위를 약속하기

- 예). A: 오늘은 맛있는 잡채 줌 {해/해 줘/해 주세요}.
B: 그렇게 할게요.

ㄷ. 약속을 강조하기

- 예). A: 친구 만나고 일찍 와야 돼{요}.
B: 꼭 그렇게 할게요.

(4ㄱ)의 다른 예로 ‘알았어; 그래; 응’ 등이 있으며 (4ㄴ)의 다른 예로 ‘그렇게; 그러마; 그러자’ 등이 있다. 또한 (4ㄷ)의 다른 예로 ‘꼭 그렇게; 꼭 지킬게’ 등이 있다.

(4)와 같은 경우 교수-학습에 있어서 미래형 시제인 ‘-(으)르게요; -겠-’ 을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5). 반응하기

ㄱ. 간투사 사용 응, 네, 음, 아하, 어쩐, 어머 등.

- 예). A: 글썸 말이야. 옆 집에서 딸을 낳았대.
B: 어쩐.

ㄴ. 다양한 얼굴 표정/고개를 끄덕임/몸짓/행동

- 예). A: 아침이 되면 창문부터 열자.
B: (창문을 연다)

ㄷ. 멈춤

- 예). A: 오늘 영화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B: (멈춤)

(5ㄱ)은 상대방의 발화를 들은 청자가 간투사를 사용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5ㄴ)은 한국어의 화용정보에 있어서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반응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5ㄷ)은 언행을 멈춤으로서 긴장, 진지함 등 청자 심리를 나타내는 응답 발화 전략이며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다.

2. 비껴가기

(1). 변명하기

ㄱ. 사실은(하지만) + 후행문(이유 설명)

예). A: 요즘 늦게 자는 거 아냐?

B: 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요.

ㄴ. 다음부턴 + 후행문(회피)

예). A: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요?

B: 다음부턴 일찍 와야죠.

ㄷ. 하필이면 + 후행문(후회)

예). A: 왜 사진 안 찍었니?

B: 하필이면 가방을 차에 놓고 내려서...

(1ㄱ)은 ‘사실은(하지만)’ 뒤에 후행문을 발화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이다. (1ㄴ)은 상대방의 발화에 이어 대화를 회피하는 예이며 때로는 침묵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1ㄷ)은 변명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응답 발화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2)는 칭찬하기에 대한 비하하기로 보편적인 언어가 쓰이며 웃음을 수반하여 응답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의 세 가지 유형은 화자 발화의 언어 수행력에 따른 강도성에 따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강도성은 화자의 적극적, 소극적 양태에 따른 발화와 상관 관계를 가진다. 다음에 제시한 (2)의 (1ㄱ)~ (1ㄷ)을 보면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 표현으로 ‘아니에요 < 별말씀을요 < 과찬이세요’의 순서대로 화자의 발화 수행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

ㄱ. 아니에요.

예). A: 한국에 시집와서 힘들게 많지?

B: 아니에요.

ㄴ. 별말씀을요.

예). A: 항상 너한테 고맙다.

B: 별말씀을요.

ㄷ. 과찬이세요.

예). A: 아유, 한복이 너한테 잘 어울리네.

B: 과찬이세요.

(2ㄱ)~(2ㄷ)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래 (바)의 예문을 통해서도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는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겸손’ 이 언어 문화로 수반되는 것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시어머니: 애, 이젠 제법 음식을 잘 만드는구나.

A: 아니예요.

B: 별말씀을요.

C: 과찬이세요.

다음의 화제 돌리기는 비껴가기 전략의 보편적인 응답 발화 유형으로 비교적 화행 정보 기능에 익숙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예문으로 구성된다.

(3). 화제 돌리기

ㄱ.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A: 요즘 기분이 안 좋다면서요?

B: 날씨가 많이 풀렸죠?

ㄴ. {참/ 그런데} + 동사구

예). A: 오늘 뭐 먹으러 갈까?

B: 참, 그런데 돈은 있어요?

ㄷ. 농담하기

예). A: 자기도 나 많이 사랑하죠?

B: 가만 있자. 연예인 중에 누가 짤 멋지더라?

(3ㄱ)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날씨 얘기를 하며 화제를 돌리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3ㄴ)은 보통 ‘참’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시킬 때 사용되는 예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예문 B>는 발화 환경을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 (3ㄷ)은 대화를 할 때 면목이 없거나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농담을 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4). 반응하기

ㄱ. 짧은 휴지

예). A: 우리 동생 결혼식에 뭐 준비할까?

B: 아마 냉장고나... 음, 그래요.

ㄴ. 짧은 침묵

예). A: 엄마, 요즘 공부가 재미없어요.

B: (침묵) 그래도 할 건 해야지.

ㄷ. 미소, 웃음

예). A: 열심히 만들더니 반찬이 맛있네.

B: (미소) 호호.

비껴가기의 반응하기는 보편적으로 짧은 휴지, 짧은 침묵, 미소, 웃음으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10ㄱ)은 동생 결혼식 준비에 대한 상대방(남편)의 질문에 냉장고를 얘기한 후 잠시 발화를 멈추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10ㄴ)은 요즘 공부하기가 재미없다는 자녀의 발화에 진지하거나 화가 난 것을 침묵으로 표현한다. (10ㄴ)의 예문 외에 ‘글쎄, 그랬나, 어머니’ 등의 독립어와 함께 짧은 휴지를 수반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발화나 반응에 미소나 웃음 또는 미소와 웃음을 동시에 표현하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10ㄷ)의 예문이 이러한 경우이다. 즉 자신이 만든 반찬이 맛있다는 상대방의 칭찬에 미소와 웃음으로 기분이 좋다는 감정표현을 전한다.

3. 거절하기

(1). 불평하기

ㄱ. -(으)면서 + {후행문}

예). A: 엄마,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B: 요즘 숙제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런 말하니?

ㄴ. 간투사 사용

예). A: 여보, 나 오늘도 좀 늦을 거 같은데.....

B: 어머, 어쩔.

ㄷ. 선행문 + ‘- 는데 ’ + {후행문}

예). A: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니까 먼저 밥 먹어요.

B: 오늘 맛있는 거 해 냈는데...

불평하기에 사용되는 간투사의 예로 ‘에이; 참, 정말’ 등이 있다.

한편 (1ㄱ), (1ㄴ), (1ㄷ)의 경우의 응답 발화를 화자의 발화에 대해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라). 남편: (달력을 보며)

참,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구나.

A: 작년에도 잊어버렸으면서...

B: 아유, 또...

C: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하기는 혼자말로 중얼거리거나 후행문을 생략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문 <A>는 (1ㄱ)의 경우이며 예문 는 (1ㄴ)의 경우이다. 또한 예문 <C>는 (1ㄷ)의 경우이다.

다음은 거절하기 전략의 유형 중에서 가장 강도성이 높은 반박하기의 응답 발화 예문이다.

(2). 반박하기

ㄱ. 침묵/한숨/비소

예). A: 에이 참, 오늘 비빔밥 먹고 싶었는데.....

B: 휴, 또 잔소리...

ㄴ. 화자 의견 반대

예). A: 여보, 베트남엔 내년 봄에 갑시다.

B: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ㄷ. 말대꾸로 반박하기

예). A: 애, 좀 일찍 일어나야지.

B: 뭘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다음의 (3)은 주장하기에 대한 경우를 예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장하는 강도성에 따른 응답 발화로 세분화된다. (2ㄱ)은 보일러를 새로 사자는 상대방(남편)의 질문, 제안과 다른 생각을 소극적 양태로 주장한다. (2ㄴ)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확인하며 주장을 하는 응답 발화이다. (2ㄷ)은 청자의 생각과 다른 입장임을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3) 주장하기

ㄱ. (저는) + {명사/동사구} + {라/다}고 생각해요.

예). A: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새 걸로 살까?
B: 저는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ㄴ. (진짜/진짜로) + {명사/동사구} + 맞아요.

예). A: 니가 오해한 거 아니냐?
B: 제 생각이 맞아요.

ㄷ. (그보단/그 생각보단) + 후행문

예). A: 나 아무래도 회사를 옮기려구.
B: 그보단 내년까지 다녀보세요.

(4). 의구심 표시하기

ㄱ. 정말이세요?

예). A: 나 아까 오다가 넘어질 뻔 했다.
B: 정말이세요?

ㄴ. 설마요.

예). A: 요즘 애가 공부도 안하는 거 아니냐?
B: 설마요.

ㄷ. 그럴까요?

예). A: 지금까지 안 오는 걸 보니 안 오려나 보다.
B: 그럴까요?

의구심 표현하기는 보편적인 도입표현으로 설정하여 도입하였다. (4ㄱ)은 상대방

에게 있었던 일을 듣고 의아하여 재확인한다. (4ㄴ)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설마요’ 라는 대답을 하며 의구심을 표현한다. (4ㄷ)은 상대방의 미래 확신에 대해 질문 형식의 발화문으로 상대방에게 의구심을 전달한다.

다음 (5)의 제한하기는 ‘제한’ 을 표현하는 ‘조사’ 가 사용된다.

(5). 제한하기

ㄱ. 조사사용: 만은, 예는, 만, 는 등

예). A: (슈퍼에서) 뭐 드릴까요?

B: 라면 5봉지만 주세요.

ㄴ. {그건/그렇게는/그것만은} + 부정문

예). A: 엄마, 나 오늘 친구네서 잘게요.

B: 그것만은 안되.

ㄷ. 명사/동사구 + 말고 + 후행문

예). A: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할까?

B: 이번주말고 다음주에 가요.

(5ㄱ)의 예문 는 조사 ‘-만’ 을 사용하여 선행하는 명사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5ㄴ)을 보면 ‘그렇게는 + 부정문’ 으로 발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렇게는’ 은 부정문을 수반한다. 이때 ‘그렇게는’ 은 제한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5ㄷ)은 상대방이 ‘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할까?’ 라는 질문으로 제안을 한다. 이에 관계한 담화 맥락은 응답(대답)으로 장소, 요일, 대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은 발화 상황별 양태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된다.

즉 ‘명사/동사구 + 말고 + 후행문’ 을 수반하며 화자의 의도에 따라 ‘말고 + 후행문’ 을 사용하여 대상을 제한한다.

(가). 저수지 말고 유원지로 가요.

(나). 토요일 말고 일요일날은 어때요?

(다). 이번엔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만 갑시다.

(가)는 장소를 제한, (나)는 요일을 제한, (다)는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는 모두 ‘말고’ 를 사용하여 발화하게 된다.

동의하기는 ‘그렇게 + 긍정문’ 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문은 동의하는 것

에 대한 내용이다. 동의하기가 ‘그렇게 + 긍정문’ 을 수반하는 데 반해 제한하기는 ‘그렇게는 + 안(못) 부정문’ 을 수반한다. 제한하기의 ‘그렇게는’ 은 후행하는 안(못) 부정문을 제한한다.

이러한 차별성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훈계하기

ㄱ. 어떤 {실수/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봐/보세요}.

예). A: 왜 나한테 그래?

B: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ㄴ. 그렇게 + 동사구 + {면/하면} 어떻게 {될까/될까요}?

예). A: 아까 철이랑 또 싸웠어요.

B: 그렇게 자주 싸우면 어떻게 될까?

ㄷ. {앞으로는} + 동사구 + ㄴ 거라고 믿어요.

예). A: 내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화났나보다.

B: 앞으로는 일찍 올 거라고 믿어요.

(6ㄱ)은 훈계하기 전 훈계와 연관된 대상에 대해 의견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6ㄴ)은 훈계를 하기 위해 청자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일어날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훈계하는 내용의 동사구를 대신하는 어휘 ‘말, 행동’ 으로 대체하여 발화하기도 한다.

(마). 자녀: 엄마, 빨리 밥주세요.

자넷: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

(바). 자녀: 오늘은 세수하기 싫다.

자넷: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하니?

(마)의 어휘 ‘말’ 이 가리키는 내용은 자녀가 예의없이 말하는 것이며, (바)의 어휘 ‘행동’ 이 가리키는 내용은 자녀가 세수를 안하려는 행동이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훈계 대상은 보편적으로 자녀에 해당된다.

(6ㄷ)은 훈계 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6)에 제시한 훈계하기의 세 가지 유형을 대화문으로 학습하여 익히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한 예문은 다음의 (사)와 같다.

(사). 자 녀: (침묵)

자 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봐 <제기>

자 녀: 숙제를 안했어요.

자 녀: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떻게 될까? <제시>

자 녀: 선생님께 혼날 거예요.

자 녀: 앞으로는 숙제 잘 할거라고 믿어 <믿음 - 유대감>

(사)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이 자녀 양육자의 입장임을 주목하며 실제 수업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고려한다.

다음은 끼어들기의 대한 설명이다.

(7). 끼어들기

ㄱ. 웃음/한숨

예). A: 글썄 말이야, 너도.....

B: 깔깔.

ㄴ. 음, 참(짧은 휴지)

예). A: 어제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 (들었어?)

B: 참, (싸울 수도 있지.)

ㄷ. 농담

예). A: 역시 내가 사진받은 잘 받는다니깐.....

B: 에이, 나만큼 하려고...

(7ㄱ)은 상대방이 발화할 때 웃음으로 대화에 끼어드는 경우이다. (7ㄴ)은 간투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화에 대응하는 문장 형식인데 이런 경우는 청자 입장에서 화자의 발화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 (7ㄷ)은 상대방이 발화를 할 때 농담 표현으로 대화에 끼어드는 경우의 예문이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침묵이 ‘반항’ 이나 ‘거부’ 의 의미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미안해서 말할 수 없음’ 의 의미를 나타내어 화자 발화의 의미를 수궁한다. 즉 화자 발화의 의미에 ‘선호적 행동을 하는 것’ 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영일 외 6인, 2003:160-161).

다음은 ‘거절하기’ 의 반응하기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예문과 함께 제시한 것이

다.

(8). 반응하기

ㄱ. 침묵/비소/ 침묵과 비소 동시 반응

예). A: 왜 그래요?
B: (비소) 알면서...

ㄴ. 긴 휴지/간투사/긴 휴지와 간투사 동시 반응

예). A: 이번에 애 성적이 많이 떨어졌네.
B: ... 어휴! ...

ㄷ. 고개를 저음

예). A: 올케, 화 풀고 식사해요.
B: (고개를 저음) 드세요.

(8ㄱ)은 상대방이 반박하며 질문할 때 비소와 함께 대답하며, (8ㄴ)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긴 휴지와 간투사로 표현한다. (8ㄷ)은 자신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개를 저어 표현한다.

4. 되돌려주기

(1). 설득하기

ㄱ. 하지만/그렇지만/그래도 + 후행문

예). A: 애가 요즘 운동만 하는 거 아니냐?
B: 하지만 건강에 좋잖아요.

ㄴ. 이해시켜 설득하기

예). A: 반찬을 보니 요즘은 시장에 안갔나보다.
B: 이해해 주세요.

ㄷ. 상대방의 의견, 행동에 대해 설득하기

예). A: 아무래도 우리 애 과외를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B: 잘 생각해 봐.

(1ㄱ)의 예문 의 ‘하지만’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설득하

는 내용이 후행한다. (1ㄴ)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 많이 사용된다. (1ㄷ)은 상대방의 의견,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여 자신의 다른 의견임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선행하는 도입표현 ‘잘 생각해 봐’의 후행하는 ‘지금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활비도 있잖아; 애 아빠한테 상의 해봐요’ 등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응답 발화가 뒤따른다.

다음에 제시하는 격려하기는 보편적인 구어 발화 문장이 사용되며 세 가지 유형을 예문으로 응답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2). 격려하기

ㄱ. 힘내요./힘내세요.

예). A: 요즘 회사일이 힘들어.

B: 힘내요.

ㄴ. 제가 있잖아요.

예). A: 가을이 되니 쓸쓸해지네.

B: 제가 있잖아요.

ㄷ. 잘 될거예요.

예). A: 우리 애 아빠 이번에 출장간 일 잘되고 있나 몰라.

B: 잘 될 거예요.

(2ㄱ)은 상대방에게 힘내라고 하며 응원을 할 때 사용한다. (2ㄴ)은 화자의 상대방에게 유대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응답 발화이다. (2ㄷ)은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보상하기는 상대방에게 보상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표현된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선행 발화한 화자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의사소통적 의도를 포함한다.

(3). 보상하기

ㄱ. {대신/그 대신/그 만큼} + 동사구

예). A: 엄마, 나 오늘 국어 100점 올랐어요.

B: 돈가스 사줄게.

ㄴ. 앞으로는 + 동사구

예). A: 배고픈데 밥이 없나봐?

B: 앞으로는 해 놓을게.

ㄷ. 대접하여 보상하기

예). A: 아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B: 제가 오늘 삼계탕 해 드릴게요.

(3ㄱ)은 자녀의 국어 성적이 100점 맞은 것에 대해 돈가스를 사주어 칭찬하는 의미를 가진다. (3ㄴ)은 미래에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경우이며 (3ㄷ)은 상대방의 발화나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은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4). 감사 전하기

ㄱ. 덕분이에요.

예). A: 이젠 한국말 잘하네.

B: 덕분이에요.

ㄴ. 저도 고맙습니다.

예). A: 전화 고마워요, 올케.

B: 저도 고맙습니다.

ㄷ. 아유, 고마워라.

예). A: 내가 요 앞에서 빵 좀 사왔어.

B: 아유, 고마워라.

감사 전하기는 보편적 세 가지 유형을 응답 발화로 제시하였다. (4ㄱ)은 한국말을 잘한다는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덕분이에요’ 라는 대답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4ㄴ)은 상대방이 고맙다는 내용을 발화를 할 때 자신도 고맙다는 내용의 발화로 감사를 전하는 경우이다. (4ㄷ)은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감사 표현이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이 언어를 발화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경우에도 쓰임을 학습시켜야 한다.

감사 전하기는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징 중 하나로 공손한 태도가 함께 수반되어 전달됨을 인지시키며 이러한 대화와 관련된 원리로는 ‘Brown Levinson’의 공손성 원리가 있다.

(5). 추측하기

ㄱ. 아마 {맞을/그럴} 거예요.

예). A: 오늘 아빤이 회식하고 늦으려나?

B: 아마 그럴 거예요.

ㄴ. (설마) 아닐 거예요.

예). A: 오늘 애가 싸운 거 아니냐?

B: 설마 아닐 거예요.

ㄷ. 정말 그럴까(요)?

예). A: 내일은 비 많이 오겠다.

B: 정말 그럴까요?

(5ㄱ)~(5ㄷ)의 예문 는 모두 추측해서 대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행의미기능은 ‘추측해서 대답하기’³⁵⁾로 볼 수 있다.

(5ㄱ)은 상대방의 발화가 맞을 거라는 내용을 ‘아마-’를 사용하며 추측하여 대답한다. (5ㄴ)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전달하며 추측한다. 예문 에 제시한 어휘 ‘설마’는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추측할 때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 (아), (자), (차)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아). 남편: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 아냐?

자넷: 설마 아닐 거예요.

(자). 시누이: 오빠 나 때문에 화났겠다.

자 넷: 설마 아닐 거예요.

(차). 이웃: 애가 놀기만 하나봐.

자넷: 설마 아닐 거예요.

어휘 ‘설마’ 다음에는 항상 ‘아닐 거예요’가 후행한다. 이때 ‘아닐 거예요’는 상대방이 발화한 내용과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예문들을 통해 추측하기 유형의 응답 발화는 대면 상대방이 선행 발화한 내용에 대해 듣고 추측하여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ㄷ)은 상대방의 추측에 대한 대답으로 의문 형식의 발화를 하는데 이때 발화문은 질문과 추측을 포함한다.

35) 이은주(2006)의 ‘<표 32> 의사소통기능 중심 한국어교재 전체 단원 구성’에서도 ‘추측해서 대답하기’를 논의했다.

(6). 감탄하기

ㄱ. (정말) + 형용사 + 구나.

예). A: 라면 끓였다.

B: (떡으며) 참 맛있구나.

ㄴ. 감탄사 사용

예). A: 신나지?

B: 야호!

ㄷ. 간투사 사용

예). A: 나 상 받았다.

B: 음, (잘했네).

(6ㄱ)은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을 끓여준 이의 발화에 이어 라면 맛이 좋음을 감탄하여 전달한다. (6ㄱ)의 예로 ‘(정말) + 그렇구나; 맞구나; 재미있구나’, ‘(정말) + 멋져요; 맛있네요; 잘해요’ 등이 있다. (6ㄴ)은 발화 환경의 장소가 산이나 야외로 기분을 물어보는 상대방의 질문에 ‘야호!’ 라는 감탄사로 발화한다. (6ㄴ)의 다른 예로 ‘이야!; 어머니!; 정말!’ 등이 있다. (6ㄷ)의 예문 에 사용된 간투사 ‘음’은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하여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친교 표시하기의 세 가지 유형이다. (7ㄷ)의 예문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해요’는 이웃간 교제나 친교를 위해 필요하며 ‘언제 식사라도 대접할게요’는 시댁가족이나 예의를 전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학습시킨다.

(7). 친교 표시하기

ㄱ. 자주 연락할게요/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자주 연락하세요.

예). A: 놀러와요.

B: 자주 연락할게요.

ㄴ. 언제 놀러 오세요/ 언제 놀러(뵈러) 갈게요.

예). A: 또 만나요.

B: 언제 놀러오세요.

ㄷ.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해요/ 언제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예). A: 오늘은 그만 가야겠네요.

B: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해요.

친교 표시하기의 응답 발화 도입표현은 교체하면서 자주 쓰이는 보편적인 세 가지 유형의 발화를 제시하였다. (7ㄱ)은 ‘자주 연락할게요’ 라는 응답 발화로 듣는 이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며, (7ㄴ)은 집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의견을 전달한다. (7ㄷ)의 예문 를 사용하는 화자는 한국인이 식사를 하며 교체하는 문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해요’ 라는 발화로 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 같이 약속하기

ㄱ. 약속해 주세요.

예). A: 내년 봄에 베트남 가야지.

B: 약속해 주세요.

ㄴ. 저도 (꼭) 약속 지킬게요.

예). A: 우리 큰 소리는 내지 맙시다.

B: 약속 지킬게요.

ㄷ. 약속(해).

예). A: 엄마, 이젠 숙제 먼저 하고 놀게요.

B: 약속해.

(8)은 화자가 약속하기를 수행한 후 청자가 같이 약속할 경우이다.

(8ㄱ)은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경우이며 (8ㄴ)은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경우이다. (8ㄷ)의 경우는 응답 발화하면서 손가락을 걸거나 표정의 긴장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8ㄷ)의 예문은 비언어적 행위를 함께 익히도록 한다.

(9). 같이 칭찬하기

ㄱ. 명사 + ‘은/는’ + 더 {그래요/그러세요}.

예). A: 아유, 너 한복이 잘 어울린다.

B: 어머니는 더 그러세요.

ㄴ. 역시 + 명사 + {이}세요.

예). A: 재수씨, 더 예뻐졌어요.

B: 역시 아주버님이세요.

ㄷ. 명사(조사) + 최고예요.

예). A: 오늘 장모님께 소포부쳤어.

B: 자기 최고예요.

(9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칭찬한 발화에 대해 칭찬을 더하여 보답하는 예이다. 이러한 다른 예로 ‘더 잘 하세요; 더 고우세요’ 등이 있다. (9ㄴ)도 화자가 자신에게 한 칭찬에 대해 역시 칭찬하여 보답하는 예문이다. (9ㄷ)의 예는 청자에게 칭찬을 한 화자 발화에 대해 인정해 주어 같이 칭찬하는 경우이다.

(10). 설명하기

ㄱ. 정보 전달

예). A: 이번 주에 갈 데 없을까?

B: 이번 주에 꽃 박람회 한 대요.

ㄴ. 묘사

예). A: 니 남편 인상 어떠니?

B: 곱슬머리에 키가 큰 편이야.

ㄷ. 위치, 상황 등 설명

예). A: 극장이 어디있냐?

B: 전철역 근처에 있어요.

(10ㄱ)은 상대방에 질문에 대해 그와 관계한 정보를 전달한다. (10ㄴ)은 자신의 남편의 모습이 궁금하여 질문하는 상대방에게 남편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10ㄷ)은 상대방이 극장의 위치를 물어보자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설명하기 표현이다.

(10)의 예문들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설명하기의 응답 발화는 상대방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요청하기

ㄱ. 동사구 + 해 주세요.

예). A: 오늘 내가 늦었지?

B: 다음부터 전화해 주세요.

ㄴ. 동사구 + 합시다.

예). A: 일요일엔 늦잠 좀 잡시다.

B: 애들이랑 운동합시다.

ㄷ. 동사구 + 해주실래요?

예). A: 애야, 뭐 할 거 없냐?

B: 파 좀 다듬어 주실래요?

(11ㄱ)은 명령, (11ㄴ)은 청유, (11ㄷ)은 부탁을 하는 문장화행기능을 수행하며 요청을 하는 예이다.

(12). 제안하기

ㄱ. {명사구/동사구} + 어때요?/어떠세요?

예). A: 아유, 나도 살 좀 빼야 되겠다. 옷이 다 작네.

B: 이 옷은 어떠세요?

ㄴ. ‘명사/동사구’ + 할까요?

예). A: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다.

B: 어머니 모시고 공원 산책할까요?

ㄷ. ‘명사’ + ‘이/가’ 동사 + 하는 게 좋겠어요.

예). A: 오늘 비가 오려나?

B: 세차하는 게 좋겠어요.

(12ㄱ)은 건의하여 제안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응답 발화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카). A: 이번 내 생일은 식구들과 식사나 하자꾸나.

B: 친구분과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카B)의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는 건의하기의 응답 발화 도입표현으로 화자는 어머니의 생신날 친구분과 제주도에 다녀왔으면 하는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며 제안한다.

(12ㄴ)은 자신의 의견을 질문하여 제안하는 경우이며 (12ㄷ)은 자신의 의견을 제

안하는 경우이다.

요청하기는 화자가 발화를 하면 청자가 요청하므로 수행 자율성에 비해 수행 의무성이 높다. 제안하기는 화자의 발화에 대해 청자가 제안하므로 수행 의무성보다는 수행 자율성이 높다.

(13). 의도 나타내기

ㄱ. 동사구 + (으)르게요.

예). A: 소풍 가는데 뭐 해주려고?

B: 김밥하고 샌드위치 만들게요.

ㄴ. ‘명사/동사구’ + -(으)려고/하려고 해요.

예). A: 요즘 심심하지 않아요?

B: 수영 좀 배우려고 해요.

ㄷ. 동사구 + (으)르{할} 거예요.

예). A: 아직 한국말 어렵지요?

B: 더 열심히 배울 거예요.

(13ㄱ)은 화자의 말을 들은 청자가 응답 발화 후 수행할 행동에 대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13ㄴ)은 화자가 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문법 ‘-(으)려고/하려고 해요’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경우이다.

(13ㄷ)은 화자가 응답 발화 후 행할 계획을 생각하며 발화하는 경우의 예문이다. 의도 나타내기의 응답 발화도 세 가지 유형을 한 담화 맥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타). 남편: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먹고 싶다.

자넷: 난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남편: 그럼 김치찌개 먹자구.

자넷: 아니에요. 김치찌개는 내일 끓일게요. (13ㄱ)

남편: 역시! 집에 7시쯤 갈거야.

자넷: 그전에 시장에 갔다 오려고 해요. (13ㄴ)

남편: 시장엔 왜요?

자넷: 싱싱한 두부 사러 갈 거예요. (13ㄷ)

남편: 오케이.

다음은 되돌려주기 전략에 따른 반응하기의 유형과 예문이다. (14ㄱ)은 영화가 재밌었다는 상대방의 말에 ‘어쩐’이라는 간투사로 호응하며, (14ㄴ)은 창피함을 큰 웃음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발화에 반응을 보인다. (14ㄷ)은 반응하기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14). 반응하기

ㄱ. 간투사

예). A: 영화가 얼마나 재밌던지.....
B: 어쩐.

ㄴ. 미소, 큰 웃음

예). A: 어이구, 너 방귀졌지?
B: 와하, (창피해라.)

ㄷ. 고개를 끄덕임

예). A: 철수 엄마 생각은 어때요?
B: (고개를 끄덕임)

응답 발화에 따른 도입표현은 일정한 말뭉치에 나타나는 문장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 유형의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응답 발화의 교수-학습에 적용한다.

어휘 및 문장들은 발화됨으로써 허락, 변명, 불평, 설득 등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화자가 발화한 의미기능에 대해 일방적인 발화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 수용, 거절, 이해, 비껴가기 등으로 응답 발화하게 된다. Searl(1979, 재인용) 등에 의하면 수행력(illocutinary force)을 가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력은 화행기능을 수반하므로 응답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은 이를 토대로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즉 하나의 응답 발화가 어떻게 하나 이상의 언어 행위(speech act)를 행하는지를 각 전략의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하나의 응답 발화가 상대방에 대한 요청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상황에 의해 확연히 구분된다.

이를 토대로 <4.2>의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며 이러한 과정은 <표 17>의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별 목록’을 토대로 논의한다.

4.2.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은 주로 노출되는 발화상황별 도입표현의 표현 능력을 익히기 위한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구축한다. 먼저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상황 즉 언어 사건을 고려한 발화 상황 목록과 유형별 전략의 교수-학습 순서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을 대화 쌍으로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자가 “내 생일날 올 수 있니?”, “Can you pass me the salt?” 등으로 발화하는 것은 상대방 능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요청일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상황에 의해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황은 대화 전략에 중요한 학습 과정이며 이에 상황에 따른 응답 발화(도입표현)를 익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점이 있다.

제기 1.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을 할 것인가?

제기 2.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제기 1>과 <제기 2>의 논점을 선별하기 위해 먼저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모색하고 각 교수-학습 순서를 <표>로 제시한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 정보가 중요하므로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을 모색하고 <표>로 제시한다. 언급하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발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순서와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를 제시하여 모색한다. 여기서 순서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학습 전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때 효율적인 교수-학습 순서를 말한다.

<표 15>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순서

| 순서 제시 | 응답 발화 항목 (의사소통 능력 초점) | 이론적 근거 |
|----------|--------------------------|---|
| 1 | (수용하기) 반응하기 | *. 한국어를 익히기 전부터 필요한 ‘반응하기’ 학습. *. 언어를 몰라도 반응을 통해 긍정적 표현, 수긍, 호감 등을 표현할 수 있음. |

| | | |
|----|------------------|--|
| 2 | 감사 전하기 | *. 특히 시댁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감사함을 전함으로써 유대감,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줌. |
| 3 | 동의하기 | *. 화자 발화-청자의 입장에서 동의(친밀감, 유대감) *. 긍정적 표현 전략인 수용하기 전략의 동의하기부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
| 4 | 칭찬하기 | *. 상호 유대감, 친밀감 형성 |
| 5 | 같이 칭찬하기 | *. 상호 유대감, 친밀감 형성 |
| 6 | 동조하기 | *. 수용적 태도로 상호작용 |
| 7 | 친교 표시하기 | *. 시댁가족이나 이웃과 교제 |
| 8 | 약속하기 | *. '손가락 걸기'의 비언어적 행위로 인해 학습자에게 용이성. 한국의 보편적인 언어 문화. |
| 9 | 같이 약속하기 | *. 필수적인 수행력을 가진 발화 |
| 10 | 감탄하기 | *. 학습의 용이성. 예). 정말 예쁘+ 구나 *. 상대방과 상호 작용 *. 청자 반응 신호 학습 |
| 11 | (되돌려주기) 반응하기 | *. 수용하기-반응하기 학습 후 자연스럽게 차별성을 교수 |
| 12 | 허락하기 | *. 이주 여성이 표현하고 싶어도 발화 언어를 알지 못해 응답하지 못했던 발화 중 하나임. *. 허락하기의 학습으로 인해 허락하고 싶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 |
| 13 | 의도 나타내기 | *. 여성 가족부 발간<여성 결혼 이민자용>초급 교재에 구성되어 있음. 예). 내가 가져올게요.. 소풍 갈 거예요. |
| 14 | 추측하기 | *. 아직 원활한 의사소통 단가 아니므로 추측 표현 학습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음. |
| 15 | 격려하기 | *. '격려하기'의 세 가지 유형은 비교적 형태가 단순하며 시댁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음. |
| 16 | 설명하기 | *.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정보 전달 능력 학습 |
| 17 | 제안하기 | *. 가정 주부로서 이주 여성에게 가사일과 연계해서도 선행 학습 필요. |

| | | |
|----|----------------|--|
| | | 예). 이번 주말엔 시골 어머니께 다녀 오는 게 어때요? |
| 18 | 주장하기 | *. 주장하여 응답할 수 있음 . |
| 19 | 불평하기 | *. 긍정적 표현만이 아닌 솔직한 화자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
| 20 | 보상하기 | *. 시대가족과 친밀감 |
| 21 | 비껴가기 | *. 의사소통의 유창성이 부족한 단계이므로 비껴가기 학습으로 도움이 됨. |
| 22 | (비껴가기) 반응하기 | *. 수용하기 전략의 반응하기와 차이점 교수-학습. |
| 23 | (거절하기) 반응하기 | *. 거절하기 전략의 반응하기 학습으로 거절 감정 표현. |
| 24 |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 | *. '같이 칭찬하기'와 비교 학습. |
| 25 | 요청하기 | *. 수용하기의 차이점과 함께 '요청하기'의 화행기능을 학습시킴. |
| 26 | 설득하기 | *. 수반되는 감정 표현이나 비언어적 행위 등은 난이도가 있으나 세 가지 유형의 응답 발화 학습으로 학습과 실제 발화에 도움이 됨. |
| 27 | 끼어들기 | *. 급한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에 응답 발화할 수 있음. |
| 28 | 화제 돌리기 | *.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수용, 거절, 되돌려주기의 응답 발화 능력 뿐 아니라, 밝은 분위기나 진지한 분위기의 발화로 화제 전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 |
| 29 | 훈계하기 | *. 자녀 양육 관계, 아래 사람과의 갈등 등에 필요한 학습. |
| 30 | 제한하기 | *. 표현을 못해서 전부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학습을 통해 개선. |
| 31 | 반박하기 | *. '거절하기 전략' 중에서 부정적 의미가 가장 큼. *. 학습자 특징상 시대가족과의 관계, 수반되는 비웃음, 비언어적 행위, 교수의 난이도 등으로 마지막에 교수-학습. |

본 연구의 <1장>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했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의 실제 생활과 접목시켜 가장 중요한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 기능은 일련의 연속적 화행

이 이루어지는 언어 사건(speech event)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요청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발화문에 의해 성립되기 보다는 일련의 언어 사건에서 이루어진다. 즉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실제 대면 대화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연계된 담화를 익히는 게 중요하므로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순서에 논점을 둔다.

다음으로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를 살펴보고 재논의한다.

다음은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 표 16 >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 제시

| 순번 | 응답 발화 목록 | 이론적 근거 |
|----|-----------------|--|
| 1 | 칭찬하기 | 예). 기본형: 예쁘다. ----> 예뻐요. *. 쉽게 접하는 어휘에 해당되며 학습 전략도 용이 |
| 2 | 같이 칭찬하기 | *. 칭찬하기와 차별성만 교수 |
| 3 | 감사함 전하기 | *. 학습의 용이성 |
| 4 | 약속하기 | *. 용이성, 빈도도가 높음 |
| 5 | 같이 약속하기 | *. 약속하기와 차별성만 교수-학습 |
| 6 | 의도 표시하기 | *. 초급 단계의 ‘-(으)르 거예요’의 문법 표현이며 한국어교재에서 선수 구성 항목 문법 |
| 7 | (되돌려주기) 반응하기 | *. 감사 전하기와 차별성 강조 |
| 8 | 동의하기 | *. 학습 빈도수가 높고 비교적 주도적 학습 전략 가능 |
| 9 | 허락하기 | *. 동의하기와 같은 맥락이나 혼동되지 않도록 차이점 강조. |
| 10 | 격려하기 | *. 격려하기의 <응답 발화 전략> 제시 유형은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형태와 의미 |
| 11 | (비껴가기) 반응하기 | *. (되돌려주기) 반응하기와 차별성만 교수 |
| 12 | 의구심 표현하기 | *. 비언어적 행위 수반 + 감정 표현 학습 *. 형태와 의미의 단순성 |
| 13 | 친교 표시하기 | *. 친밀감, 억양 등 비교적 난이도가 있으나 결혼 이주여성의 실생활과 연계한 필요성으로 중간 단계에서 학습. 예). 미소, 휴지 등 수반 |
| 14 | 주장하기 | *. 난이도가 높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교적 빈도수가 높음. |
| 15 | 제안하기 | *.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발화 유형 |
| 16 | 동조하기 | *. 선행 학습한 동의하기와 차별성 교수 |
| 17 | (수용하기) 반응하기 | *. 언어 학습과 함께 긍정적 감정 표현을 인지시켜야 함. 반응하기 전략 중에서 (수용하기) 반응하기가 |

| | | |
|----|----------------|---|
| | | 가장 학습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 18 | 설명하기 | *. 정보 전달의 언어 수행력 학습. 난이도가 있으나 발화 상황 빈도수가 높음. |
| 19 | 추측하기 | *. 설명하기 학습을 재학습 후에 설명은 정보전달의 의사소통 과정이며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추측할 수도 있다고 이해시킴. |
| 20 | 불평하기 | *. 선행 학습한 수용하기와 대조, 구분하여 학습. |
| 21 | (거절하기) 반응하기 | *. 불평하기 유형을 발화할 때 불평을 나타내는 반응도 있음을 학습. |
| 22 | 보상하기 | *.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 예).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대접). |
| 23 | 칭찬에 대한 비하하기 | *. 언어에 나타난 '겸손' 표현의 한국 문화를 함께 교수-학습. 난이도가 높음. |
| 24 | 요청하기 | *. 선행학습한 수용하기와 대조, 비교하여 학습. |
| 25 | 제한하기 | *. 난이도가 높음. |
| 26 | 화제 돌리기 | *. 대화 쌍에 의한 순차적 발화에 비해 빈도수가 적지만 난이도가 높음. |
| 27 | 끼어들기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 발화 중 하나이므로 후행 학습. |
| 28 | 설득하기 | *. 난이도가 높음. |
| 29 | 혼계하기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 발화이며 난이도가 높음. |
| 30 | 제한하기 | *. 난이도가 높고 혼동하기 쉬우므로 보편적 문장 유형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 |
| 31 | 반박하기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 발화이며 난이도가 높음. |

학습 전략에 따른 교수-학습 순서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성은 있으나 빈도수가 높은 실제 발화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발화로 전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응답 발화 학습은 상황에 따르는 다양한 대화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순서가 이루어져야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을 단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학습자와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응답 발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7 >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 목록

| 순번 |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 |
|----|--|
| 1 | 시부모님에게 아침 인사할 경우 ³⁶⁾ |
| 2 | 남편에게 출.퇴근 인사할 경우 |
| 3 | 자녀에게 아침 인사할 경우 |
| 4 | 시누이, 도련님 등 시댁 가족에게 아침 인사할 경우 |
| 5 | 시부모님이 식사(아침, 점심, 저녁, 간식)를 안 하거나 소식할 경우 |
| 6 | 남편이 식사를 안 하거나 소식할 경우 |
| 7 | 자녀가 식사를 안 하거나 소식할 경우 |
| 8 | 시댁 가족이 식사를 안 하거나 소식할 경우 |
| 9 | 손님이 식사를 안 하거나 소식할 경우 |
| 10 | 시부모님, 남편, 시댁 가족, 손님 등에게 칭찬을 들을 경우 |
| 11 | 음식점에서 배달시키거나 주문할 경우 |
| 12 | 전자 제품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거나 수리 기사와 대화할 경우 |
| 13 | 시장,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쇼핑할 경우. 예). 택배이용. |
| 14 | |

| | |
|----|---|
| | 생활용품, 의류 등 모든 물품을 환불할 경우 |
| 15 | 생활용품, 의류 등 모든 물품을 교환할 경우 |
| 16 | 관공서나 문화 기관 등에 문의 및 접수할 경우 예). 은행, 우체국, 시청, 스포츠 센터 등. |
| 17 | 관람, 기차표, 영화표 등을 예약 및 예매할 경우 |
| 18 | 초면인 대상과 인사할 경우 |
| 19 | 구면인 대상과 인사할 경우 |
| 20 | 친분이 있는 대상과 인사할 경우 |
| 21 | 시부모님께 훈계를 들을 경우 |
| 22 | 남편에게 조언을 들을 경우 |
| 23 | 시댁 가족에게 훈계를 들을 경우 |
| 24 | 친구, 이웃 등의 조언을 들을 경우 |
| 25 | 자녀의 고민을 들을 경우 |
| 26 | 부탁을 거절할 경우(시부모님, 남편, 자녀, 시댁 가족, 친구, 이웃 등) |
| 27 | 자녀 훈육의 경우 예). 자녀의 선생님과 대화할 때 |

36) 시어머니에게 아침 인사할 경우의 대화문을 토대로 응답 발화의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결혼 이주여성은 요구 조사에서 설정된 장소 이외에도 장례식장, 결혼식장, 돌잔치 장소, 집들이 하는 곳 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요구했다. 이는 학습자가 주부이자 며느리, 아내로서의 위치로 집안의 작고 큰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교수-학습은 발화수반력을 활용하여 문장의 변형 및 확대 등이 가능한 발화문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화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을, 제안을 혹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라 한다(박영순, 2001).

대화 구조에서 보이는 기능간의 상호 관련성은 대화의 원리와 격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논의는 일상 대면 대화의 대화 전략으로 ‘관심의 원리’라는 대화원리 아래에 적합성, 상호 작용의 원리를 설정하고 있다. 대면 대화에 있어서 유머는 상호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응답 발화 학습에 적용하여 익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화의 학습 과정이 발화 정보, 상황 정보, 인지 정보의 세 요소가 작용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세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도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은 발화 정보, 상황 정보, 인지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수요목의 내용범주는 크게 발화 상황, 응답 발화 항목, 도입표현의 기본문형, 도입표현의 화행기능으로 설정한다. 발화 상황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상황에 따른 대화를 위한 응답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다. 응답 발화 항목은 응답 전략을 학습에 제공하기 위한 문장의 화행기능별로 세분화한 항목으로 이를 교수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 및 메타언어를 사용한다. 도입표현의 기본문형은 응답 발화 항목을 토대로 결혼 이주여성의 빈도수가 높은 발화 상황에 따른 대화의 과정에 필요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기본문형이다. 마지막으로 도입표현의 화행기능은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기본문형이 가지고 있는 발화문의 화행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화문 >

시어머니: 어제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 자 넷 1: 이를 어찌, 피곤하셔서 어떻게요?(걱정)
2: 제가 허리 좀 주물러 드렸어야 했는데.....(후회)
3: 앞으로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약속)
4: 생신 때 좋은 안마기 사드리고 싶어요.(희망)

<표 18>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 발화 상황 및 대화문 | 교수-학습 내용 | | |
|--|----------|-------------|---------------|
| | 응답 전략 | 도입표현 | 화행 기능 |
| 1과. 처음 만났을 때 이웃: 안녕하세요? 자넷: 안녕하세요? 이웃: 전 옆집 살아요. 자넷 (1): 반가워요. (2): 아하. (간투사) 이웃: 반가워요. 자넷: (웃음) | 되돌려주기 | 안녕하세요? | 같이 인사하기 |
| | 되돌려주기 | 반가워요. | 초면 인사 |
| | 수용하기 | 아하. (간투사) | 긍정적 반응 |
| | 수용하기 | (웃음) |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하기 |
| 2과.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웃: 어디가세요? 자넷: 슈퍼에 좀 가려구요. 이웃: 난 시장 가려구. 자넷: 그렇구나. 이웃: 또 봐요. 자넷: 언제 놀러오세요. 이웃: 그럴까? 자넷: 그럼요. | 되돌려주기 | 슈퍼에 좀 가려구요. | 질문에 대답하기 |
| | 되돌려주기 | 그렇구나. | 듣고 호응하기 |
| | 되돌려주기 | 언제 놀러오세요. | 친교 표시하기 |
| | 수용하기 | 그럼요. | 동조하기 |
| 3과. 칭찬 들을 때 시어머니: 이제 한국말 많이 늘었네. 자넷: 어머니, 늘었더니요? 시어머니: 한국말 잘하네. 자넷: 아하,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열심히 배웠나 보다. 자넷: 더 열심히 할게요. | 비껴가기 | 어머니, 늘었더니요? | 듣고 질문하기 |
| | 되돌려주기 | 아하, 고맙습니다. | 감사 전하기 |
| | 되돌려주기 | 더 열심히 할게요. | 다짐하기 |

| | | | |
|---|---|--------------|--------------|
| <p>4과. 시댁 가족과 통화할 때</p> <p>(전화가 온다)</p> <p>자 넷: 여보세요?</p> <p>윗동서: 나야, 동서.</p> <p>자 넷: 형님, 안녕하세요?</p> <p>윗동서: 이번 아버님 생신날 언제인지 알지?</p> <p>자 넷: 몰랐어요. 죄송해요.</p> <p>윗동서: 그럴수도 있지.</p> <p>자 넷: 대신 일찍 갈게요.</p> <p>윗동서: 그럼 좋구.</p> <p>자 넷: 잘 지내시죠?</p> <p>윗동서: 덕분에.</p> <p>자 넷: 다행이에요.</p> <p>윗동서: 호호. 그럼 그때 보자구.</p> <p>자 넷: 네, 들어가세요.</p> | 되돌려주기 | 형님, 안녕하세요? | 같이 인사하기 |
| | 되돌려주기 | 몰랐어요. 죄송해요. | 미안함 표현하기 |
| | 되돌려주기 | 대신 일찍 갈게요. | 보상하기 |
| | 비껴가기 | 잘 지내시죠? | 듣고 안부 묻기 |
| | 수용하기 | 다행이에요. | 동조하기 |
| | 되돌려주기 | 네, 들어가세요. | 전화 끊을 때 인사하기 |
| | <p>5과. 남편이 출.퇴근할 때</p> <p>(출근할 때)</p> <p>남편: 다녀올게요.</p> <p>자넷: 잘 갔다 오세요.</p> <p>남편: 심심하겠네.</p> <p>자넷: 괜찮아요.</p> <p>남편: 그럼 진짜 간다.</p> <p>자넷: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p> <p>(퇴근할 때)</p> <p>남편: (들어온다)</p> <p>자넷: 잘 다녀왔어요?</p> <p>남편: 오늘 뭐했어?</p> <p>자넷: 자기 생각했죠.</p> <p>남편: 이야, 최곤데.</p> | 되돌려주기 | 잘 갔다 오세요. |
| 되돌려주기 | | 괜찮아요. | 감정 표현하기 |
| 되돌려주기 | | 바이바이. | 편하게 인사하기 |
| 되돌려주기 | | 잘 다녀왔어요? | 퇴근 인사하기 |
| 되돌려주기 | | 호호. 자기 생각했죠. | 감정 표현하기 |

| | | | |
|---|--------------|-------------------------|-------------------|
| <p>자넷: 호호. 배고프죠?</p> | | | |
| <p>6과. 구매할 때</p> <p>(옷가게에서) 점원: 어서 오세요. 자넷: 원피스 있어요? 점원: 여기 골라보세요. 자넷: (옷을 가리키며) 입을 볼 수 있죠? 점원: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넷: 얼마예요? 점원: 65,000원입니다. 자넷: 더 싸게 안되나요? 점원: 그러네요. 자넷: 입어보고 맞으면 살게요.</p> | <p>비껴가기</p> | <p>배고프죠?</p> | <p>배려하여 물어보기</p> |
| <p>7과. 자녀를 훈계할 때</p> <p>자녀: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넷: 왜 이렇게 늦었냐? 자녀: 남아서 공부했어요. 자넷: 선생님 말씀 안 들었구나. 자녀: 떠들었어요. 자넷: 그렇게 떠들면 어떻게 될까? 자녀: 선생님께 혼날 거예요. 자넷: 앞으로는 안 떠들거라고 믿어. 자녀: 엄마, 알겠습니다.</p> | <p>되돌려주기</p> | <p>원피스 있어요?</p> | <p>구매할 때 질문하기</p> |
| <p>비껴가기</p> | <p>비껴가기</p> | <p>입어볼 수 있죠?</p> | <p>요청하기</p> |
| <p>비껴가기</p> | <p>비껴가기</p> | <p>얼마예요?</p> | <p>가격 물어보기</p> |
| <p>되돌려주기</p> | <p>되돌려주기</p> | <p>더 싸게 안되나요?</p> | <p>홍정하기</p> |
| <p>되돌려주기</p> | <p>되돌려주기</p> | <p>입어보고 맞으면 살게요.</p> | <p>의도 표시하기</p> |
| <p>비껴가기</p> | <p>비껴가기</p> | <p>왜 이렇게 늦었냐?</p> | <p>이유 물어보기</p> |
| <p>되돌려주기</p> | <p>되돌려주기</p> | <p>선생님 말씀 안 들었구나.</p> | <p>추측하기</p> |
| <p>되돌려주기</p> | <p>되돌려주기</p> | <p>그렇게 떠들면 어떻게 될까?</p> | <p>훈계 행위 제시</p> |
| <p>되돌려주기</p> | <p>되돌려주기</p> | <p>앞으로는 안 떠들거라고 믿어.</p> | <p>믿음 전하기</p> |
| <p>8과. 병원이나 약국에서 아</p> | | <p>머리가 좀 아파서 사려</p> | <p>질문에 대답하기</p> |

| | | | |
|--|-------|--------------------------|----------|
| <p>픈 증상 말할 때</p> <p>(약국에서)</p> <p>약사: 뭐 드릴까요?</p> <p>자넷: 머리가 좀 아파서 사러 왔어요.</p> <p>약사: 언제부터 아팠어요.</p> <p>자넷: 아침부터 왼쪽 부분이 꽤 아프네요.</p> <p>약사: 이거 드실 때 식사 후 에 드세요.</p> <p>자넷: 하루분이에요?</p> <p>약사: (손으로 가리키며) 네, 이렇게 드시면 됩 니다.</p> <p>자넷: 수고하세요.</p> | 되돌려주기 | 왔어요. | |
| | 되돌려주기 | 아침부터 왼쪽 부분이 꽤 아프네요. | 증상 설명하기 |
| | 비껴가기 | 하루분이에요? | 질문하기 |
| | 되돌려주기 | 수고하세요. | 보상하기 |
| <p>9과. 격려할 때</p> <p>남편: 요즘 일이 힘드네.</p> <p>자넷: 일이 많아요?</p> <p>남편: 그런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기 싫어 서...</p> <p>자넷: 스트레스는 어떤 일이 든 다 있잖아요.</p> <p>남편: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 문제지.</p> <p>자넷: 어쩔 좋아요.</p> <p>남편: 뭐 괜찮겠지.</p> <p>자넷: 그럼요.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 어요.</p> <p>남편: 그래야지.</p> <p>자넷: 파이팅!</p> | 되돌려주기 | 일이 많아요? | 듣고 질문하기 |
| | 되돌려주기 | 스트레스는 어떤 일이 든 다 있잖아요. | 설명하기 |
| | 되돌려주기 | 어쩔 좋아요. | 걱정하기 |
| | 수용하기 | 그럼요. | 동조하기 |
| | 되돌려주기 |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 희망 표현하기 |
| | 되돌려주기 | 화이팅! | 응원하기 |
| | 되돌려주기 | 정말요? | 의구심 표현하기 |
| <p>10과. 설득할 때</p> <p>시어머니: 너한테 서운하</p> | 되돌려주기 | 정말요? | 의구심 표현하기 |

| | | | |
|---|-------|----------------------------|--------------|
| 다. 자 넷: 정말요? 시어머니: 아, 그럼 정말이지. | 되돌려주기 | 무슨 일 있으셨어요? | 질문하기 |
| 자 넷: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어머니: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있는데 몰랐냐? | 되돌려주기 | 애 숙제 봐줬더니 피곤해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 설명하기 |
| 자 넷: 애 숙제 봐줬더니 피곤해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그럼 됐다. | 비껴가기 | 어머니, 얼른 병원에 가요. | 걱정하는 감정 표현하기 |
| 자 넷: 어머니, 얼른 병원에 가요. 시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다. | 되돌려주기 | 다행이네요. | 기쁨 표현하기 |
| 자 넷: 다행이네요. 따끈한 차 한잔 타드릴게요. | 비껴가기 | 따끈한 차 한잔 타드릴게요. | 보상하기 |
| 시어머니: 그래라.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난 후) | 비껴가기 | 어머니, 다음부터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 희망 전하기 |
| 자 넷: (미소) 어머니, 다음부터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어머니: 애가... 알았어. 자 넷: 네. | 수용하기 | 네. | 동조하기 |

먼저 발화 상황이 <1과>의 ‘처음 만났을 때’를 살펴보면 간투사 ‘아하’ 그리고 웃음 표현의 응답 발화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수용하기의 반응하기 표현으로 학습자.교사 인터뷰에서 초기 정착 단계의 긍.부정적 반응 학습에 대한 요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2과>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발화 상황을 보면 이웃이 ‘난 시장 가려구’라고 존대말에서 반말로 발화하자 ‘그렇구나’로 응답 발화 도입표현을 구성하였다.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또 봐요’라는 이웃의 말에 대한 응답 발화는 ‘언제 우리집에 놀러오세요’로 구성하였다. 이웃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장으로 주부로서의 결혼 이주여

성 학습자에게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3과>의 ‘칭찬들을 때’를 보면 응답 발화 도입표현으로 ‘어머니, 늘었더니요?’라는 의문문이 있다. 실제로 결혼 이주여성들은 상대방의 뜻을 못 알아들을 때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뜻을 못 알아듣게 되면 웃거나 잘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서 상대방의 뜻을 못 알아듣거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대답할 문장 형태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장 형태 ‘{형용사구/동사구} + -다니요?’를 활용한 보편적인 예문을 반복적인 대화 연습으로 학습시킨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활용한 예문을 대화 쌍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누이: 오늘 돈 벌었다.
자 넷: (형님), 돈 벌었다니요?

나. 남편: 왜 늦었어요?
자넷: (여보), 늦었다니요?

다. 이웃: 한국에서 살만하죠?
자넷: (언니), 살만하다니요?

<표 18>의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모형’과 예문 <가, 나, 다>에서 제시한 응답 발화를 보면 호칭을 수반하여 도입하였다. 호칭은 유대감 형성과 관계를 아는데 도움이 되므로 보편적인 문형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발화 상황이 <5과> ‘남편이 출퇴근 할 때’의 도입표현 ‘배고프죠?’는 배려하여 질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 손님: 많이 먹었다.
자넷: 음식이 맛이 없죠?

마. 시어머니: 아이구, 힘들다.
자 넷: 밖에 춥죠?

바. 자녀: 잠 폭자고 싶다.
자넷: 공부하기 힘들지?

이상의 ‘배려하여 질문하기’의 화행 기능을 가진 예문들을 살펴보면 ‘형용사구 + 지?’ 또는 ‘형용사구 + 죠?’의 문장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장은 아니나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특성상 유대감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학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9과>의 ‘격려할 때’를 살펴보면 모든 도입표현의 응답 전략이 되돌려주기 전략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화 상황이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 입장에서 응원과 용기를 주는 배려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10과>의 발화 상황이 ‘설득할 때’는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린 걸 몰랐다고 서운해하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설득에 성공한다. 대화문은 대화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위한 과정까지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한국 문화에서 고부간에 갈등이 높은 편임을 주지하여 학습시켜야 한다. 한국 문화를 모두 인지해야 하는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에게 한국의 긍·부정적 문화와 관련된 한국어교육을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댁 가족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는 점과 이런 점들은 완화되어 가도 있음을 주지시킨다. 동시에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시댁가족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수업도 중요하다.

담화 이동에서 무의식적이지만 조직적인 인지적 연상 작용이 텍스트의 생산에 기여한다. 대화는 언어학적이고 문법적인 요소로만 접근할 수 없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을 토대로 대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응답 발화를 익히는 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면 대화는 일견 무질서하고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성요소들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기능한다. <표 18>의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은 이러한 체계에 따른 구성요소들을 응답 발화를 화행의미기능에 따라 조합한 것이다. 이는 대화 쌍으로 연결되어 보편적인 대화 상황에 따라 선행 발화와 응답 발화가 함께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학습할 수 있다.

본 논의는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가 발화 상황별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대화 쌍을 활용하여 익히고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 교수-학습’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고자 한다.

4.3.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 교수-학습

<제 1장>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 전략 연구를 위해 이에 따른 발화 수반 의미의 강도성 및 보편적인 문장 유형에 따라 도입표현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에 언어문장의 기능별 의미를 중심으로 각 발화 전략에 따른 도입표현을 강도성 및 보편적인 발화문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상대방의 발화에 따른 담화맥락별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위해 응답 발화를 기능별 의미 중심으로 이어나가는 게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대화 쌍은 대화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짝을 이루는 대화 구조이다(김영일 외, 2003). 이것은 한 대화 참가자가 첫째 부분을 발화하면 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둘째 부분의 발화³⁷⁾를 바로 인접해서 짝을 이루게 하는 구조이다. 이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대화의 과정을 보편적인 사용 언어로 설정하여 실제 언어 생활을 위한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각 응답 전략의 응답 발화 유형 즉 동의하기, 반응하기, 평계대기 등의 문형에 발화 상황별로 어휘나 구 또는 문형을 변형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접해서 짝을 이루는 대화구조는 그 사회 구조에서 굳어진 관습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시2 > 인사 대화쌍

첫째 부분

1. A: 안녕하세요?
2. A: 반갑습니다.
3. A: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수입니다.

둘째 부분

- B: 안녕하세요?
- B: 반갑습니다.
- B: 자넷이에요.

<예시 2>에서 나타나듯이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다른 화자가 받아서 하는 인사말이 사회적으로 굳어진 관습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굳어져 예상되는 답을 하는 인사의 대화 쌍은 처음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의 대화 쌍, 안부 인사의 대화 쌍, 헤어짐 인사의 대화 쌍, 감사-답 인사말의 대화 쌍이 있다. 대화 쌍을 지니는 대화구조에는 이외에도 물음-답, 요청-수락 등이 있다.

이러한 대화 쌍 구조를 토대로 화자의 발화에 맞는 도입표현을 삽입시켜 교수-학

37) 주입식 교재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발화와 이에 따른 응답 발화의 보편적인 도입표현을 전략적 유형에 따라 대화 쌍으로 익힐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발화 상황별 응답 전략에 해당하는 ‘대답하기’를 도입표현으로 제시, 분석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전략은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 언어 직관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습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결혼 이주여성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대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 쌍 구조를 활용하여 각 응답 전략의 유형별로 보편적인 구어를 도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결혼 이주여성들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도입표현을 선택하여 응답 발화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4.2>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을 토대로 대화 쌍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제안한다.

굳어진 관습 체계를 따르는 대화 쌍의 둘째 부분은 대부분 기계적이며 자동적이다. 사회적으로 굳어진 대화 쌍은 의미적으로 하나의 언어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대화 쌍의 둘째 부분을 발화하지 않는다면 화자의 이유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는 결혼 이주여성이 대화 쌍을 활용하여 도입표현을 익히고 실제 발화 상황별 대화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교재 구성을 위해 발화 상황별로 분석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중심으로 도입표현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결혼 이주여성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내용의 도입표현을 대화 쌍으로 나타낸 예문이다.

<예시 3> 시어머니: 오늘은 시장에 같이 가자

자 녀 1: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의도 나타내기)- 강도성 1

2: 지금 가요, 어머니.(요청하기) -강도성 2

3: 내일은 어때요, 어머니? (제안하기) - 강도성 3

<예시 3>은 화자의 발화에 대해 청자의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라 3가지의 후행 대화를 발화하게 되므로 3가지 유형의 대화 쌍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다. 응답 발화 유형은 의도 나타내기, 요청하기, 제안하기로 모두 되돌려주기 전략이다. 이를 통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청자가 이를 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전달하는 되돌려주기 전략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 발화를 상황별로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예문은 4가지 응답 전략의 형태로 문장 발화가 분포되거나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학습자가 표현 능력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착 초기 단계부터 회화 중심의 대화문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의 학습 전략에 적용시켜야 한다.

응답 발화를 교수-학습에 적용시켜 실제 언어사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응답 발화에 따른 도입표현을 강도성 및 보편적인 문형

에 따라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전략이며 후자는 청-화자간 보편적인 구어 문형의 대화 쌍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2가지 학습 전략을 교수-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화문을 활용한 예문들이다.

<예시 3>

시어머니: 이젠 제법 음식을 잘 만드는구나.
자 넷: 모두 어머니 덕분인걸요.(되돌려주기-같이 칭찬하기).
시어머니: 그러나, 껌껌. 밥먹고 슈퍼 좀 갔다 오렴.
자 넷: 아유, 배고파라.(비껴가기 -화제 돌리기)
시어머니: 아서라, 내가.....
자 넷: 아니에요, 제가 다녀와야죠(거절하기-끼어들기)

<예시 4>

남 편: 다음부터 늦기 전에 미리 전화해요.
자 넷 1: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수용- 약속하기)
2: 차가 밀려서 그런건데..... (비껴가기- 변명하기)
3: 아유, 10분밖에 안 늦었는데..... (거절- 불평하기)
4: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했거든요.(되돌려주기 - 설득하기)

<예시 3>은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내용의 대화문을 토대로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예문이다. <예시 4>는 남편과의 약속에 늦은 발화 상황으로서 남편의 말에 대한 응답 발화를 보편적인 구어 문형의 대화 쌍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시 3>은 기존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문과 유사하며 응답 발화를 전략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 차이점이 있다. <예시 4>는 상대방의 발화를 들은 청자가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른 화행의미기능별로 도입표현을 선택하여 학습,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시 3>과 <예시 4> 모두 응답 발화를 전략별로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으나 <예시 4>의 예문은 다양한 4가지 유형을 대화 쌍으로 학습하여 실제 생활에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결혼 이주여성용 한국어교재의 대화문 및 학습 내용은 <예시 3>의 대화문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다른 발화 환경 및 다양한 대답하기 표현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대화를 할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예시 4>와 같은 대화문 형태로 구성하여 대화 쌍을 활용한 도입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보편적인 발화 상황의 응답 발화 도입표현을 대화 쌍을 활용하여 익히게 되면 대화에 있어서 학습한 대화 쌍의 응답 발화를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게 된다.

즉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대화 쌍을 토대로 이루어진 응답 발화의 도입표현 예문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표현 능력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성인 학습자로서 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습득 능력 중 하나인 언어 감감적 직관을 통해 응답(대답)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 전략의 교수-학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응답 전략을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화 양식을 조절·통제하는 능력(전략적 능력)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V. 맺음말

4.1.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모색으로 응답 전략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 발화 전략의 도입표현 학습을 제안한다.

즉 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기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나 내용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가 대화 참여자들의 조정(negotiation)이라는 전제 아래 일상 대면 대화를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로 구분하고 후행 발화(응답 발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 발화가 어떤 구조를 갖고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의 과정과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효과적인 대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대화 전략은 대화를 위한 응답 발화를 결혼 이주여성의 학습에 적용시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으로 학습에 도모하는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대화 구조의 응답 발화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인해 일상 대면 대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화는 능동적인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조정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리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차별성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차별화된 부교재 단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은 생존을 위한 기능 뿐 아니라 친교 활동, 정보 교환, 문제 해결 기능까지 포함해야 된다.

둘째, 각 단원은 의사소통 기능 요구조사를 통해 예측된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습한 내용이 실제 사용으로서의 전이성이나 적용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부교재는 다른 학습자를 위한 부교재와는 달리 외국인 주부의 요구와 실제 생활 속의 상황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응답 발화의 교수-학습 전략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노출되는 발화 환경에 따라 상대방과의 대화 양태별로 응답 발화의 강도성을 익혀두는 데 목적이 있다.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다른 학습자 집단과 같은 발화 환경이나 대화 쌍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은 다른 학습자 집단과 차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말로 하는 담화 능력을 위한 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요구조사 결과 대면 대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거나 필요한 학습 전략으로 응답 전략에 대한 교수-학습을 제안하였다.

응답 전략은 대화에 있어서 ‘대답하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으로 대화의 단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전략이 된다.

이러한 응답 전략의 교수-학습은 크게 ‘상황에 맞는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발화 상황별 도입표현 및 교수-학습 내용’, ‘대화 쌍을 활용한 교수-학습’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언급한 세 가지의 교수-학습의 순서대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되, 세 가지의 교수-학습 방안을 부교재로 편찬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학습은 크게 응답 전략, 도입표현, 화행 기능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는 수용하기 전략, 비껴가기 전략, 거절하기 전략, 되돌려주기 전략으로 인식된 각 유형별 화행 기능의 응답 발화 도입표현을 익히게 된다. 도입표현은 회화체의 문장 표현으로 익힘으로써 자연스러운 발화에 도움을 제공받을 것이다.

본고는 일상 대면 대화의 응답 발화를 분석함으로써 ‘대답하기’에도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4.2. 남은 과제

이 연구는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해 표준어와 일부 구어 사용을 중심으로 부교재 단위 구성에 그친 점, 응답 발화 전략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결혼 이주여성의 응답 발화 전략을 상황과 연결한 각 단원의 본문 내용에만 국한하여 도입표현의 분류, 분석에만 치중하고 그 외는 다루지 못한 점에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응답 발화를 학습이 아니라 습득(Aquisition)의 방법으로 먼저 배우게 됨을 논의해 본 바에 의의가 있다.

이를테면 용언의 활용 방법과 기본형을 몰라도 응답 발화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화할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을 위한 응답 발화를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에 최초로 시도한 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도입표현을 익힘으로써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점³⁸⁾, 실제 언어 사용의 차별화에 기여한 점 등의 기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의는 결혼 이주여성이 차별화된 발화 상황을 토대로 단시간에 전략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은주(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모색으로 어휘와 단원 구성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 쌍과 도입표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답 발화의 발화수반력의 강도에 따라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며, 결혼 이주여성의 차별화된 의사소통 전략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기여가 되길 바란다.



38) 우리가 영어 회화 학습을 하면서 상황별로 대답해야 할 문장에서 한 단어나 한 어절만 외워도 언어 표현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 강희숙(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강흥구(1978). 국어의 대화 분석: 문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구지은(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 방안: 부산·경남 지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길영, 김동화, 김복희(2003). 한국어 화용론. 부산: 세종출판사.
- 김갑현(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 공공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선정(2006).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25, 125-130. 이중언어학회.
- 김선정, 강현자, 김성수(2006). 대구·경북지역 이주여성 적응교육 중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25, 238-249. 이중언어학회.
- 김원섭(1984). 조사 ‘는’의 연구: 의미 특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김은실(200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강석광(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영옥(2002). 유아를 위한 다문화 연구. 서울: 정민사.
- 김영일(2003). 한국어 화용론. 부산: 세종출판사.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한국가족학회.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우(1994). 언어와 의사소통. 서울: 한신문화사.
- 권미정(2001). 수업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대하여: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18호. 이중언어학회.
- 남기심, 고영근(2006).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박민신(2008). 한국어 어휘의 의미 전달 전략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 교.
-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 의미론. 서울: 박이정.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정아(2001). 한국어 대면 대화 분석 연구: 대화 구조와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외국어대학교.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재규(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지역사례. 月刊 상.
- 박형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보건복지부 [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손은록(2004). 국제 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송경숙(2003).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서명선(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학문화.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지원 방안. 1-24(24쪽).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 서희정(200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성동현(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안정성과 사회적응.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손춘섭(2007).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 한국어 교육. 전남대학교 국어교육원.
- 유동엽(1997). 대화 참여자의 대화 전략에 관한 연구: 상호 작용을 위한 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왕한석.한건수.양명희(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관규(2005). 학교 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月印.
- 이강숙(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이민경(2005). 한국어 일일학습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이상률. 김기열(2006). 소외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이중언어학 25, 233-237. 이중언어학회.
- 이성순(200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우리어문연구 27(1), 69-79.
- 이은주(2006).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초급 한국어교재 단원 내용 구성 방안. 석사

- 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이영옥(2006). 이주 여성을 위한 생활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이숙의(2001). 담화의 상황성과 화제 전환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정은(1997). 요청의 상호 행위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해영(2001a).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1b). 학습자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선택과 평가. 한국어교육. AATK. IAKLE 연합학술대회.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편](2005).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月刊 상.
-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서울정책.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
- 유영옥(2007).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윤석민(1989). 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왕한석(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 교문사.
- 전북발전연구원 [편](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 연구 13(3), 33-52. 한국언어치료학회.
- 정정덕(1986).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통사론적 연구: 종속 접속 어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장수정(2006).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조선경(2007).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연구: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현용(2007).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최성덕(1997). 신문 광고의 문체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최호철 외(2005). 학위 논문의 국어 의미 연구 경향 3: 논문 해제(조사, 어미, 접사, 관용어, 연어, 문장, 발화). 서울: 도서출판 月印.
- 홍윤기(2006). 메타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회.

-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국문화인류학회.
- 한득재(2000). 대화의 원리와 문답 표현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여성신문 2007년 11월 23일자 기사.
- Karlsson, A.(1997). Teaching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rough Language. 한국어교육 제8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Laufer, B. & Eliasson, S.(1993). What causes avoidance in L2 learning: L1-L2 difference, L1-L2 similarity, or L2 complexit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 33-48.
- Pennypook, A.(1996). Borrowing Other's Words: Text, Ownership, Memory, and Plagiarism. TESOL QUARTERLY 30.
- Susan, M. G. & Larry, S.(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박의재, 이정원 옮김. 1999. 제2언어 습득론. 서울: 한신문화사.
- Wang, Hye-sook(1999). Speech Ac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Representations and Authenticity.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참고 교재 >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2006). 한국어 교육자 과정 강의안. 경희대학교 출판부.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0).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1).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2007). 한국어 중급. 국립국어원.
-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2007). 우리 엄마의 한국어(초급). 농림부 여성정책과.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2.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2). 한국어 3.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2). 한국어 4. [주]문진미디어.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여성가족부(2005). 한국어교재(초급).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2).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2). 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3). 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86). 한국어 1.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86). 한국어 2.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86). 한국어 3.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86). 한국어 4.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92). 한국어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92). 한국어 6.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happylog.naver.com.kbsktw>(KBS 강태원 복지재단)

<http://www.dailian.co.kr>(토론이 있는 인터넷 신문)

g. Việc học “Cách trả lời(đối đáp)” tiếng Hàn Quốc có thú vị khô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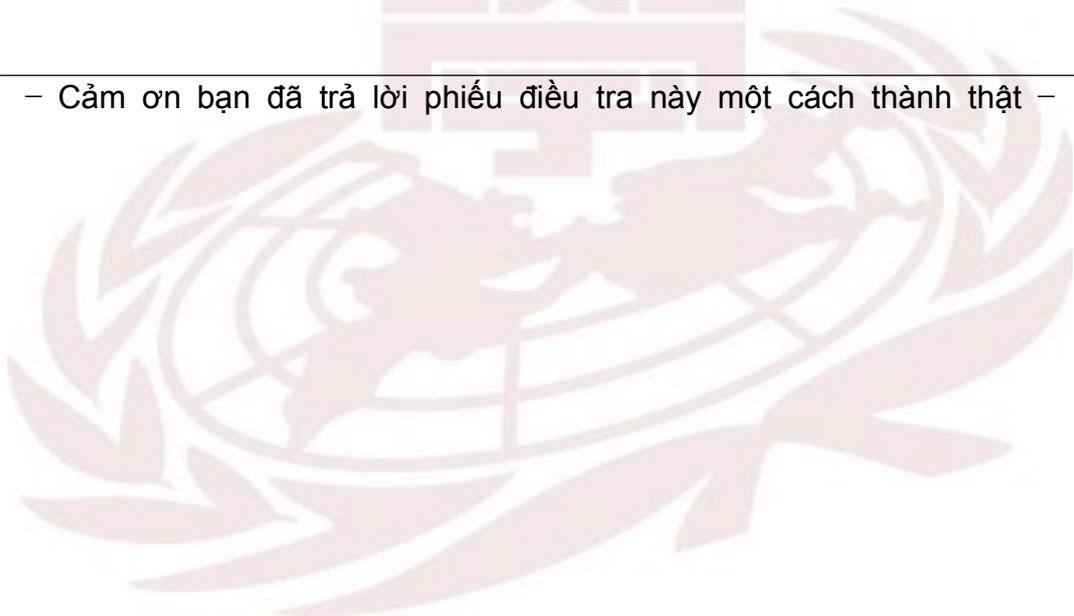
- 1) Rất thú vị
- 2) Thú vị
- 3) Bình thường
- 4) Không thú vị
- 5) Hoàn toàn không

h. Bạn nghĩ rằng việc học “Cách trả lời(đối đáp)” tiếng Hàn là cần thiết?

- 1) Rất cần thiết
- 2) Cần thiết
- 3) Bình thường
- 4) Không cần thiết
- 5) Hoàn toàn không

i. Nếu bạn có ý kiến gì khác, xin hãy ghi vào đây.

– Cảm ơn bạn đã trả lời phiếu điều tra này một cách thành thật –



A. What is the reason to learn Korean?

1. For a conversation with a family
2. For an occupational life
3. To adapt to a Korean society
4. To help children's school life
5. Miscellaneous

B. Have you often had the chance of being unable to answer in case of a conversation with a Korean? ->(If none, please go to 'E')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C. With whom have you not answered in Korean in terms of a conversation?

1. Husband
2. Family of a husband
3. Children
4. Neighbor
5. Miscellaneous

D. What is the reason of being difficult to answer(respond) in terms of Korean?

1. Un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other's saying
2. Unable to find a Korean to answer
3. Unaware of the first word in Korean
4. Unaware of a pronunciation
5. Unprepared learning of Korean

E. Do you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answer' in terms of Korean?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III. Survey on Content of Learning

A. Please specify a title of a Korean textbook that you use. ()

B. Have you learned much 'how to answer(respond)' necessary in a life?

->(If none, please go to 'D')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C. Is a Korean textbook that you use helpful to learn 'answering(responding) in Korean'?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D. How often does the following event occur?

| | A great deal | Yes | Somewhat | No | Not at all |
|--|--------------|-----|----------|----|------------|
| 1. There is a time when I don't know how to speak in Korean. | | | | | |
| 2. It is difficult to think of a word that I'd like to speak | | | | | |
| 3.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other person says | | | | | |

E. Do you want to learn 'how to answer/respond' in terms of Korean? Please indicate with 'V' like the following example.

5 ----- 4 ----- 3 ----- 2 ----- 1

A great deal - Yes - Somewhat - No - Not at all

- | | | | | | | |
|--|---|---|---|---|---|----|
| 1. When talking with a family member | 5 | 4 | 3 | 2 | 1 | __ |
| 2. When talking with neighbors | 5 | 4 | 3 | 2 | 1 | __ |
| 3. When helping children's school life | 5 | 4 | 3 | 2 | 1 | __ |
| 4. When talking with a colleague in an office | 5 | 4 | 3 | 2 | 1 | __ |
| 5. When consulting with a child's school teacher | 5 | 4 | 3 | 2 | 1 | __ |

F. In what way do you want to learn 'answering/responding' in terms of Korean?

-> (Please mark with 'V' every method that you want to learn)

1. Class using TV, video, or radio
2. Class of listening to main contents via cassette tape
3. Class using newspaper, magazine, or photo
4. Class through Internet of a computer
5. Class via Korean textbook

G. Please specify a method that you want to learn most among the methods indicated in the above 'F'.

->(If you marked only one item, then move to 'H')

()

H.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interesting to learn 'answering(responding)' in terms of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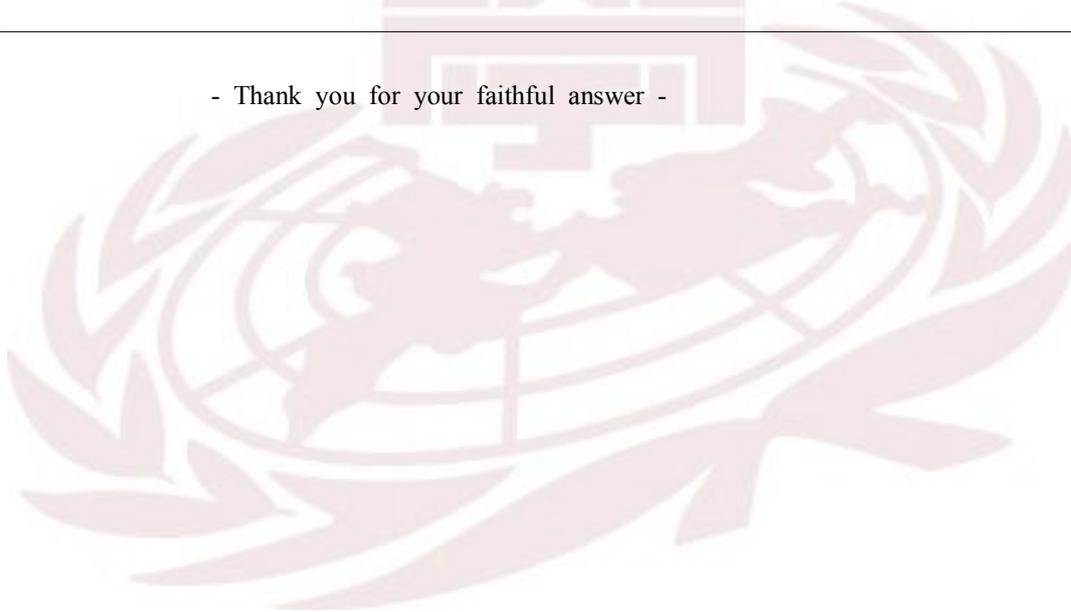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I. Do you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answer(respond)' in terms of Korean?

1. A great deal 2. Yes 3. Somewhat 4. No 5. Not at all

J. Please write down if you have any other opinions.

- Thank you for your faithful answer -



<부록 3> 일본어 질문지

< '返答(返事)会話戦略' 学習に対する質問紙 >

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

韓国語を学ぼうと頑張っていっらしやることと思います。私は慶熙(キョンヒ)大学教育大学院で韓国語教育を専攻しているパク・ユンジユと申します。このアンケートは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に対する皆さんのご意見を参考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準備いたしました。会話の際、相手の話を聞いて理解しても、その状況ではどんな返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難しい時があると思います。このアンケートは皆さんが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に対してさらに詳しく学べるようになるために作ったものです。このアンケートは基礎研究の目的にだけ使われ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 ‘V’でチェックするか、または書いて下さい。

I. 一般的な調査

ア。名前 : ()

イ。年齢 : (才)

ウ。子供 : 有() 無()

エ。夫(妻)のご両親 : 有() 無()

オ。あなたの国をお書き下さい。

カ。現在、住んでいる地域はどこですか? : 都市() 農村()

キ。韓国に来てどれくらいになりましたか?

1.6ヶ月未満

2.6ヶ月以上- 1年未満

3.1年以上- 3年未満

4.3年以上- 5年未満

5.10年以上

II. 学習者要求調査

ア。韓国語を学ぶ理由は何ですか？

- 1.家族との会話のために
- 2.仕事をするために
- 3.韓国社会に適応するために
- 4.子供の学校生活のために
- 5.その他

イ。韓国人と会話をする時、返事が出来ないことが頻繁にありますか？ ->(なければ‘オ’へ進んで下さい)

- 1.非常によくある
- 2.はい
- 3.まあまあ
- 4.いいえ
- 5.全くない

ウ。韓国語で返事が出来なかった時は、誰との会話でしたか？

- 1.夫
- 2.夫(妻)の家族
- 3.子供
- 4.近所の人
- 5.その他

エ。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が難しい理由は何ですか？

- 1.相手の言葉の意味を聞き取れなくて
- 2.答える韓国語が分からなくて
- 3.返事するための、最初の言葉がわからなくて
- 4.発音がよく分からなくて
- 5.韓国語学習が出来ていないため

オ。韓国語の‘答える方法’を習う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か？

- 1.非常にそう思う
- 2.はい
- 3.まあまあ
- 4.いいえ
- 5.全く思わない

III. 学習内容要求調査

ア。今、使っている韓国語教材の名前を書いて下さい。()

イ。生活に必要な‘答えること(返答)方法’をたくさん習いましたか？

->(なければ‘エ’へ進んでください)

- 1.非常にたくさん習った
- 2.はい
- 3.まあまあ
- 4.いいえ
- 5.全く習ってない

ウ。今、使っている韓国語教材が‘韓国語で答えること(返答)’学習に役に立ちますか？

- 1.非常に役に立つ
- 2.はい
- 3.まあまあ
- 4.いいえ
- 5.全く役に立たない

エ。下のようなことが頻繁に起きますか？

| | | | | | |
|--|--|----|------|-----|-----|
| | | はい | まあまあ | いいえ | 全く思 |
|--|--|----|------|-----|-----|

| | | | | | | |
|----------------------------------|-------------|--|--|--|--|-----|
| | 非常に そう思う | | | | | わない |
| 1. 韓国語でどのように話せばいい か分からない時がある。 | | | | | | |
| 2. 話したい単語がよくわからない | | | | | | |
| 3. 他の人が話す言葉が聞き取りに くい | | | | | | |

オ。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方法’を習いたいですか? 例のように‘V’でチェックして下さい。

5 ----- 4 ----- 3 ----- 2 ----- 1

非常にそう思う - はい - まあまあ - いいえ - 全く思わない

- | | | | | | | |
|------------------|---|---|---|---|---|----|
| 1.家族と話す時 | 5 | 4 | 3 | 2 | 1 | __ |
| 2.近所の人と話す時 | 5 | 4 | 3 | 2 | 1 | __ |
| 3.子供の学校生活を手伝う時 | 5 | 4 | 3 | 2 | 1 | __ |
| 4.職場の同僚と話す時 | 5 | 4 | 3 | 2 | 1 | __ |
| 5.子供の学校の先生と相談する時 | 5 | 4 | 3 | 2 | 1 | __ |

カ。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はどんな方法で学習したいですか?

-> (学習したい方法にすべて‘V’チェックして下さい)

- 1.TVやビデオまたはラジオを利用した授業
- 2.カセットテープで本文内容のリスニング授業
- 3.新聞や雑誌、写真を利用した授業
- 4.コンピュータの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授業
- 5.韓国語教材による授業

キ。上の‘カ’で表示した中で最も習いたい方法を書いて下さい。

->(一つの項目だけ表示したら‘ク’へ進んでください。)

()

ク。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を学ぶことがおもしろいと思いますか？

- 1.非常にそう思う 2.はい 3.まあまあ 4.いいえ 5.全く思わない

ケ。韓国語の‘答えること(返答)’学習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

- 1.非常に思う 2.はい 3.まあまあ 4.いいえ 5.全く思わない

コ。その他、意見があれば書いて下さい。

- 皆さんの誠実な回答に感謝申し上げます -



<부록 4> 중국어 질문지

《关于“应答（回答）言语策略”学习的问卷调查》

大家好！

大家学习韩国语辛苦了！我是庆熙大学教育研究院韩国语教育专业的朴润珠。这份问卷是为了了解大家对韩国语“回答（应答）”的意见而准备的。大家在与他人对话时，有时会在听到对方的话或理解后出现不易回答的情况。该问卷是为了让大家能够更加详细地学习韩国语的“回答（应答）”而制作的，我们将只用于基础研究。

*. 用“V”标示或填写。

I. 一般的需求调查

- 1) 姓名：（ ）
- 2) 年龄：（ 岁）
- 3) 子女：有（ ）无（ ）
- 4) 公婆：有（ ）无（ ）
- 5) 请填写您的国家名称：（ ）
- 6) 您所居住的地区：城市（ ）农村（ ）
- 7) 来韩国多久了？
 1. 不到6个月
 2. 6个月~1年
 3. 1年~3年
 4. 3年~5年
 5. 10年以上

II. 学习者需求调查

1) 学习韩语的原因是什么?

1. 为了与家人对话
2. 为了工作需要
3. 为了适应韩国社会
4. 为了帮助子女的学校生活
5. 其它

2) 与韩国人对话时,经常发生不能回答的情况吗? → (如果没有,请跳到“5”)。)

1. 很经常
2. 经常
3. 还可以
4. 不经常
5. 根本没有

3) 与谁对话时不能用韩语回答?

1. 丈夫
2. 公婆家人
3. 子女
4. 邻居
5. 其它

4) 觉得韩语“回答(应答)”困难的原因是什么?

1. 不理解对方的意思
2. 无法找到回答时的韩语单词
3. 不知道应该怎么开口说第一个韩语单词
4. 不知道发音
5. 没有学习过韩语

5) 您认为有必要学习韩语的“回答的方法”吗?

1. 非常必要
2. 必要
3. 还可以
4. 不必要
5. 根本不必要

III. 学习内容需求调查

1) 请填写您正在使用的韩语教材。()

2) 您学习过很多生活上所需的“回答(应答)方法”吗?

→(如果没有,请跳到“4”)。)

1. 非常多
2. 很多
3. 还可以
4. 不多
5. 根本没有

3) 您使用的韩语教材,对于您学习“用韩语回答(应答)”有帮助吗?

1. 非常有帮助
2. 有帮助
3. 还可以
4. 没有帮助
5. 根本没有帮助

4) 下面的情况经常出现吗?

| | 很经常 | 经常 | 还可以 | 不经常 | 根本没有 |
|--------------------|-----|----|-----|-----|------|
| 1. 有时不知道该如何用韩国语说话。 | | | | | |
| 2. 不容易想出要说的韩国语单词。 | | | | | |
| 3. 不容易听懂别人说的话。 | | | | | |

5) 您想学习韩国语的“回答(应答)方法”吗? 如下所示请用“V”标示。

5 ----- 4 ----- 3 ----- 2 ----- 1

非常想 - 想 - 还可以 - 不想 - 根本不想

- | | | | | | |
|----------------|---|---|---|---|---|
| 1. 与家人聊天时 | 5 | 4 | 3 | 2 | 1 |
| 2. 与邻居聊天时 | 5 | 4 | 3 | 2 | 1 |
| 3. 帮助子女的学校生活时 | 5 | 4 | 3 | 2 | 1 |
| 4. 与同事聊天时 | 5 | 4 | 3 | 2 | 1 |
| 5. 与子女的学校老师谈话时 | 5 | 4 | 3 | 2 | 1 |

6) 您想通过什么方法学习韩国语的“回答(应答)”?

-> (请用“V”在想要学习的方法上标示。)

1. 通过TV、视频或收音机的教学
2. 用盒式磁带听课文内容的教学
3. 通过报纸、杂志或图片的教学
4. 通过电脑的互联网教学
5. 通过韩国语教材的教学

7) 请填写6)中标示的方法中最想学习的方法。

-> (如果只标示了一项, 请跳到“8”)。)

()

8) 您认为学习韩国语的“回答(应答)”将会非常有趣吗?

1. 非常有趣
2. 有趣
3. 还可以
4. 没意思
5. 根本没意思

9) 您认为学习韩国语的“回答(应答)”是必要的吗?

1. 非常必要
2. 必要
3. 还可以
4. 不必要
5. 根本不必要

10) 如果有其它意见, 请填写。

-非常感谢大家的认真回答-



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과의 대화를 위해
2.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3.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4.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5. 기타

나.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대답을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없으면 ‘따’로 가십시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다. 한국어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누구와 대화할 때였습니까?

1. 남편
2. 시댁가족
3. 자녀
4. 이웃
5. 기타

라. 한국어의 ‘대답하기(응답)’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상대방의 뜻을 못 알아들어서
2. 대답할 한국어를 찾지 못해서
3. 한국어의 첫 단어를 몰라서
4. 발음을 잘 몰라서
5. 한국어 학습이 안 되어 있어서

마. 한국어의 ‘대답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III. 학습 내용 요구조사

가. 사용하는 한국어교재의 이름을 써 주세요. ()

나. 생활에 필요한 ‘대답하기(응답) 방법’을 배운 적이 많습니까?

->(없으면 ‘라’로 가십시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사용하는 한국어교재가 ‘한국어로 대답하기(응답)’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라. 아래의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 | | | | |
| 2.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생각해 내기 어렵다 | | | | | |
| 3.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 기 어렵다 | | | | | |

마. 한국어의 ‘대답하기(응답)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보기처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5 ----- 4 ----- 3 ----- 2 ----- 1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
|----------------------|---|---|---|---|---|
| 1.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 5 | 4 | 3 | 2 | 1 |
| 2.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 5 | 4 | 3 | 2 | 1 |
| 3.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때 | 5 | 4 | 3 | 2 | 1 |
| 4.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때 | 5 | 4 | 3 | 2 | 1 |
| 5.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때 | 5 | 4 | 3 | 2 | 1 |

바. 한국어의 ‘대답하기(응답)’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고 싶습니까?

-> (학습하고 싶은 방법에 모두 ‘V’ 표시 하십시오)

1. TV나 비디오 또는 라디오를 이용한 수업
2. 카세트 테이프로 본문 내용 듣기 수업
3. 신문이나 잡지, 사진을 이용한 수업
4.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한 수업
5. 한국어교재에 의한 수업

사. 위 ‘바’에서 표시한 방법 중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방법을 써 주십시오.

->(한 가지 항목만 표시했으면 ‘아’로 가십시오)

()

아. 한국어의 ‘대답하기(응답)’를 배우기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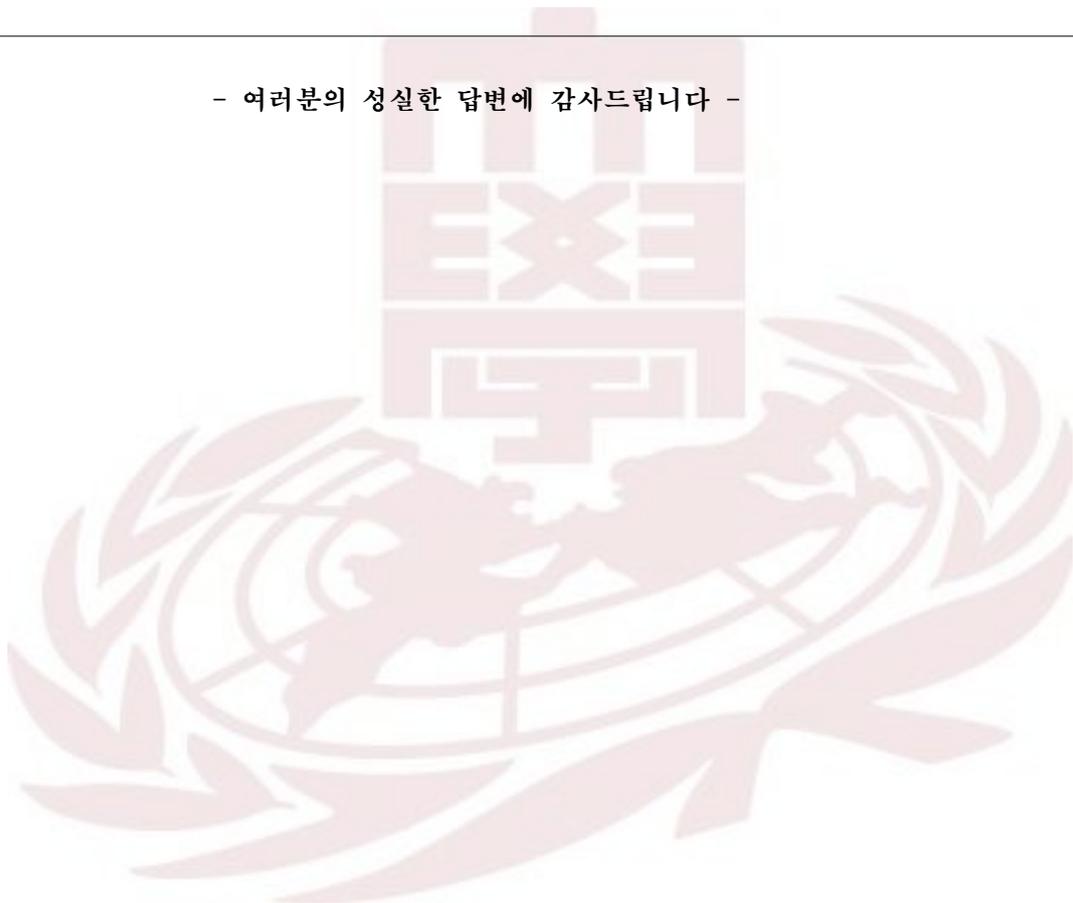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자. 한국어의 ‘대답하기(응답)’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차.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f responding utterance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 For the marriage immigrants to learn Korean more effectively -

This study tries to find responding utterance strategies and construct introductory expressions of responding utterance for communication.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or having a conversation with others, one might find it difficult to choose a word to express himself or herself. It is a well known fact in language education that it takes long period of study to overcome this. Marriage immigrants need to settle in and adapt to Korea quickly. But there is no research presenting solutions for this problem or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teaching-learning model by utterance situ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arriage immigrants and this study constructs content so that they can apply it in their lives.

Chapter 1 discuss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study method and subjects. In addition, it reviews previous research on communic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targeting marriage immigrants and presents the necessity of study.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there is no research on learning strategy for communi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who are in different environment from other learners. Only a few studies presented problems and needs for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re is no study that researched responding strategies for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study of Korea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is and presents study problems.

Chapter 2 discusses the results of survey and interviews conducted with the learners and teachers to find out the necessity of learning

'responding'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and generalizes this. This study found that all the learners and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interview recognized the necessity of responding strategy for conversation and active learning methods.

Based on this, Chapter 3 analyzes responding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The responding strategies used by marriage immigrants are classified into 4 broad categories of acceptance(Allowing, responding, agreeing, etc), avoidance (Making excuses, changing subjects, interrupting, etc), refusal(Complaining, asserting, refuting, etc), and returning(Guessing, admiring, showing intention, etc) strategies and 31 sub items.

The classification was made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illocutionary force, which indicates the communication intention of an utterer perceived by the addressee in a language event.

The introductory expressions of responding utterance strategies and teaching-learning models are constructed in general sentences.

It is because the level of responding utterance performance capabi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formal combination and arrangement of vocabulary that forms a sente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Chapter 4 presents teaching-learning models for responding strategies based on the 4 types of responding strategies. Three teaching-learning models for responding strategies are presented including 'introductory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responding utterance, situation appropriate introductory expressions and teaching-learning model, introductory expression teaching-learning model using conversation pairs'.

Chapter 5 discusses ways to generalize the strategic learning of responding utterances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and further research needs.

Korean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needs to produce effects quickly and it needs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social situations and demands.

Marriage immigrants can respond appropriately by learning responding

strategies for frequently occurring utterance situations. It is because communication process is something in which an utterer says something and the addressee responds appropriately by conjecturing the intention of the utterer.

Moreover, marriage immigrants do not have time to learn Korean systematically over long period of time. They have to learn while taking care of their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introductory expressions appropriate for situations so that they can learn responding utterances strategically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occurrence to improve their speaking ability.

When the introductory expressions according to situ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communication functions, they can be easily transferred to real situations. Through this, they will gain confidence in speaking naturally.

After presenting learning using responding utterance strategies to improve communication capability, this study also presen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study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ntent by strategic communication situation for increasing marriage immigrants.

Therefore, future studies need to present responding utterance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 to which they are frequently exposed and these strategies need to be applied to teaching -learning.

